

 법무부 교정본부



 법무부 교정본부



COVER STORY



달려라, 공영 자전거! 경북북부제1교도소 시설과의 모두를 위한 도전

경북북부제1교도소 시설과 관리계 배기웅 교감, 정학열 교위, 이창재·송성진 교사가 노란 자전거를 타고 달립니다. 뱃나무 잎이 붉은 옷으로 갈아입기 시작한 가을의 초입, 그들이 구축한 공영 자전거 시스템이 더 신나게 달릴 날을 생각합니다.

버스 배차 간격이 1시간을 훌쩍 넘기는 청송에서 자전거는 출근하는 젊은 교도관들과 이웃한 진보면으로 장을 보러 나서는 가족들을 태울 것입니다. 날씨가 좋으면 좋겠습니다.

교정 풍경 02
교정인의 눈 08
교정직필 12
스마트 교정 14
세계는 지금 16

職터뷰 18
나이스 투 밋 유 22
만나다, 잇다 26
교정Toon 28
슬기로운 교정생활 30

로컬의 취향 32
일상력연구소 36
라이프 2.0 40
나의 마음은 42

교정본부 뉴스 44
교정기관 오늘 48
독자마당 52

Contents

교정

Vol.600
2026 SEP+OCT

생각을 잇다

한국 교정史의 맨 처음, 공주교도소
교정청 신설, 이제는 나아갈 때다
나는 엄마 같은 책을, 다시 일어서는 책을 좋아한다
교정공무원 5명 중 1명 마음건강 경고등
글로벌 교정 트렌드 리포트

마음을 잇다

“오운완보다 ‘오현완’이라고 생각해요”
장흥교도소 서한결 교도의 216번째 헌혈
버려진 자전거에서 달리는 ‘노랑이’로!
공영 자전거 띄운 경북북부제1교도소 시설과 4인방
창원교도소 「청렴 표어 공모전」
커피트럭으로 열정 부스팅했어요!
2025 교정본부 홍보 공모전
웹툰 부문 장려상 「나는 교정공무원입니다」
이제는 능동시대! 새 교정생활관을 소개합니다

일상을 잇다

토박이를 따라서, 부산 원도심 여행
예금보다 어렵고 주식보다 지루한데...
왜 큰손들은 채권을 살까?
덕업일차: 이제는 좋아하는 일을 해야 한다
안전 혹은 위험, 나의 음주생활은?

소식을 잇다

교정본부 주요 소식
전국 교정기관 소식
응원 댓글 이벤트

발행인 이홍연 법무부 교정본부장
발행일 2026년 10월 6일
발행처 법무부 교정본부
주소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법무부(1동)
홈페이지 www.corrections.go.kr



페이스북



네이버 블로그



유튜브



인스타그램

다양한 온라인 채널에서 교정부부의 이야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 교정史의 맨 처음, 공주교도소

우리 근현대사는 감옥 사무가 경찰에서
법부(法部)로 이전한 1908년을 교정
역사의 시작으로 기록하고 있다.
공주교도소는 그때도, 이전에도, 지금도
교정의 사명을 지킨다. 소란한 법 없이
따뜻하게, ‘법과 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청기와 위에 고목이
떨군 낙엽을 얹은
민원인대기실.
(오른쪽) 하단에 병커가
있는 구조의 감시대가
그대로 보존돼 있다.





- 1 '일제의 탄압, 6.25의 포화, 민주화의 격랑 속에서도 오로지 국민 한길, 굽은 나무 바로 펴는 사명과 위업을 위해...' 홍익표 교도가 공주교도소 100년 기념비에 새겨진 마음을 읽고 있다.
- 2 마침 기을, 하늘도 수용동 담도 흰색과 푸른색으로 단정하다.
- 3 수용동 내부. 넓은 가운데 단정함이 깃들여 있다.
- 4 1978년 금홍동으로 이전한 공주교도소. 48년 된 '새' 청사는 곳곳에 과거를 기록해 두었다.
- 5 2020년 발간된 '공주교도소사' 책에 실린 사진 일부가 청사 현관에 전시돼 있다.

2020년 발간된 『공주교도소史』에는 ‘1500년의 시간과 공간’이라는 부제가 붙어 있다. 이 책은 근현대사를 아득히 뛰어넘어 공주가 ‘웅진’으로 불리던 시간에서 시작한다. 백제가 저물고 고려는 땅 이름을 공주로 바꾸었으며, 조선은 임진왜란 직후 충청감영을 공주로 옮겼다. 1908년 감옥 사무가 경찰에서 법부(法部)로 이전하면서 ‘옥’은 ‘형무소’가 되었고, 1950년대 6·25전쟁 기간에 대부분의 형무소는 전쟁의 포화를 맞았다. 전쟁의 상흔을 갓 극복한 1961년 12월 23일 교화와 사회 복귀를 돕는다는 의미를 품은 ‘교도소’라는 명칭이 한국 현대사에 처음으로 등장한다.

공주교도소는 이 기나긴 시간 내내 공주 안에 있었다. ‘법과 질서의 확립’, 흐트러진 진입로를 지나 정문을 통과하자 세월을 짐작케 하는 서체로 쓰인 교정의 변치 않는 사명이 먼저 눈에 들어왔다. 공주교도소는 70년간의 교동시대를 뒤로 하고, 1978년 금흥동으로 자리를 옮겼다. 올해로 48세를 맞이한 청사는 검박하고 아늑하다. 푸른 빛 띠를 두른 나지막한 청사와 청기와를 얹은 민원인대기실, 개청 당시 주요 시설이었을 네 개의 감시대는 등대처럼 희고 굳세다. 청주에서 꽤 오래 지방직 공무원으로 생활했다는 홍익표 교도는 고향인 대전, 근무지였던 청주보다 공주가 좋다고 했다. “조용하죠, 점잖고요. 무엇보다 사람들 마음이 넉넉합니다.”

한국 교정사를 함축하고 있는 교정기관, 공주교도소가 자신들의 역사를 기록하는 방식이 궁금했다. 홍익표 교도가 먼 데서 온 손님에게 맨 처음 보여준 공주교도소는 뜻밖에도 작은 정원이었다. 정문 오른쪽, 연못을 중심으로 산책로와 등나무 벤치와 1.5층 높이의 정자가 있는 이 정원에는 두 개의 비석이 나란히 서 있다.

6·25전쟁 당시 희생된 공주형무소 직원들을 기리는 추모비와 공주교도소 100년을 기억하는 기념비다. ‘일제의 탄압, 6·25의 포화, 민주화의 격랑 속에서도 오로지 딱 한길, 굽은 나무 바로 펴는 사명과 위업을 위해…’ 교정동우회 공주지회 선배들이 돌 위에 새긴 마음은 산책로를 오가는 후배들에게 시시때때로 가닿을 것이다. 청사 현관에는 교동시대 사진들이 전시돼 있었고, 완공 즈음 심었다는 네 그루 느티나무는 여전히 푸르렀다.

공주교도소의 모토는 ‘수용자 인권과 다양성을 존중하는 교정’이다. 수용자 관리의 지향점을 물었을 때, 서철호 보안과장은 아침에 있었던 회의 이야기를 들려줬다. “곧 명절이잖아요. 가족과 단절된 수용자들에게 각별히 마음을 쓰자고 했어요. 교화의 시작은 삶에 대한 의지를 불러넣는 거라고 생각해요.” 공주교도소는 성폭력사범 집중 교육기관이기도 하다. 심리치료팀 강영훈 교위가 전하는 프로그램의 방향성은 다음과 같다. “중요한 건 내면화예요. 이를 위해 면담 시 교육 대상자의 성장 배경과 범죄 이력, 인지적 특성을 꼼꼼히 파악하려고 노력합니다.” 교도소 또한 사람이 살아가는 곳을 매 순간 기억하는 이들이 공주교도소를 지키고 있다.



6

공주교도소에서 목격한 마지막 장면은 전통과 새로움의 공존이다. 백성호 교감은 교정공무원에 입직한 1992년 검도를 시작했다. 이 유는 분명했다. “내 몸과 정신이 건강해야 바른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검도는 마음을 읽는 무도예요. 수용자 심리를 파악하는 데 가장 큰 힘이 됐습니다.” 그는 첫 근무지로 공주교도소를 배명받았고, 그해 선배들과 검우회를 결성했다. 올해로 34년을 맞은 검우회는 여전히 활발하다. 김희열 교위가 꼽은 검사(檢士)와 교도관의 공통점은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위기 속에서도 정확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것이다. 공주교도소 검우회는 올해 7년 만에 열린 「교도관 무도대회」에서 3위에 올랐다.

그런가 하면 심기섭·김시우·서규진·황민환·김인규 교도는 올해 새롭게 이름을 알린 플레이어다. 그들은 「제1회 법무부장관배 e-스포츠대회」, 「리그 오브 레전드」 부문에서 3등을 수상했다. 애초에 있던 팀이 아니었고, 당연히 부실도 없었으며, 연습은 퇴근 후 각자의 공간에서 진행됐다. 사실 아무도, 심지어 자신들도 그들의 수상을 예상하지 못했다. “출전자마자 든 생각은 ‘아, 예선 통과 못하겠구나!’였어요. 출전자들 실력이 쟁쟁했거든요.” 그러나 황민환 교도의 예상은 빗나갔다. “말 그대로 언더도그(Underdog)의 반란이었어요. 게임을 하면서 알았죠. 저희가 팀전에 강하다는 걸요.” 처음에 출전을 제안한 서규진 교도는 다음 스텝을 계획 중이다. “검도나 탁구는 선배님들이 꼭 잡고 계시잖아요. ‘리그 오브 레전드’가 젊은 교도관들의 구심점이 될 수 있겠구나, 희망을 봤거든요.”

e-스포츠 이야기의 맨 앞에 동료와의 ‘함’을 두는 청년 교도관들을 보며 한국 교정사가 걸어온 기나긴 연대기를 다시 생각했다. 점점 길어지려는 생각과 달리 진실은 아주 단순했다. 그 마음이 앞으로 도 내내 거기에 있을 거라는 사실.

글 정평화 사진 이용기



7

- 6 페공장 부지는 풋살장이 되어 젊은 교도관들과 대체복무요원들의 건강한 에너지를 풀어준다.
- 7 마음을 쉬는 정원, 초가를 더위를 쫓는 물줄기.
- 8, 9 창립 34년을 맞이한 검우회, 지난 6월 「제55회 교도관 무도대회」에서 3위에 올랐다.
- 10 심기섭·김시우·황민환·서규진 교도팀도 부실도 없이, 「제1회 법무부장관배 e-스포츠대회」, 「리그 오브 레전드」 부문에서 3등을 수상했다.



8



9



10



교정청 신설, 이제는 나아갈 때다

교정청 신설은 우리 교정행정이 나아가야 할 방향일까? 이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있을 수 있다. 다만 조직과 정책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제는 교정청 신설의 필요성을 본격적으로 검토할 시점에 이르렀다.

교정청이라는 구상이 제안된 지도 벌써 40년이 넘었다. 관련 법안 역시 여러 차례 발의되었으나 아직까지 실현되지 못하였다.¹ 지난 80여 년간 대한민국 교정행정은 고유한 전문성을 축적하며 발전해 왔다. 현재 교정본부와 소속 기관의 정원은 1만 6,817명이며, 54개의 교도소·구치소·지소가 운영되고 있다. 교정공무원들은 수용 질서를 유지하고 수용자의 교정·교화와 사회 복귀를 지원함으로써 국민과 사회의 안전을 지키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 결과 교정시설에서의 도주 사고는 극히 드물게 발생하고 있으며, 안정적인 수용 관리라는 국가의 기본적 책무 역시 지속적으로 수행되고 있다.

정부 조직 체계에서 본 교정청 신설의 의미

먼저 현재의 교정본부 체제에서 교정청으로의 개편이 정부 조직 체계에서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은 「정부조직법」에 따라 부·처·청 등으로 구성된다. 2026년 현재 중앙행정기관 가운데 부는 19개, 처는 6개, 청은 18개이며, 각 기관은 담당하는 사무의 성격과 설치 목적에 따라 서로 다른 조직적 지위와 권한을 가진다.

특히 청은 「정부조직법」에 따라 설치되는 중앙행정기관의 한 유형이며, 대부분 소관 부처에 소속되어 전문적·집행적 행정 사무를 수행한다. 따라서 법무부 교정본부가 법무부 소속 외청인 교정청으로 개편되는 것은 법무부와 관계 단절이 아니라, 교정행정을 별도의 중앙행정기관이 담당하는 체제로 제도화한다는 의미를 가진다. 또한 외청은 기관장과 독자적인 하부 조직을 바탕으로 소관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부 내부의 본부 조직과는 운영상의 차이가 존재한다.

정부 조직의 형태는 고정된 것이 아니다. 사회 환경의 변화와 정책 수요의 확대에 따라 부·처·청의 신설·통합·개편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해양경찰의 경우 경찰 조직 일부에서 출발하여 1996년 해양수산부 외청인 해양경찰청으로 독립하였다가, 2014년 국민안전처 소속 해양경비안전본부로 개편되었으며, 2017년 다시 해양경찰청으로 독립하였다. 중소기업 정책을 담당하는 조직 역시 1996년 중소기업청으로 출범하였고, 2017년에는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되었다. 현재 중소벤처기업부는 제1·제2차관을 두는 부처로 운영되고 있다. 최근에도 정부 조직 개편을 통해 종전의 기획재정부가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개편되는 등 행정 수요의 변화에 따라 정부 조직의 형태는 계속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사례가 교정청으로의 개편과 직결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정부 조직의 형태가 업무의 규모와 전문성, 정책 수요 및 행정 환경의 변화에 따라 재설계될 수 있다는 점은 주시할 사실이다. 결국 교정청 신설 여부 역시 현재의 교정행정이 요구받고 있는 역할과 책임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변화하는 교정 환경과 교정청 신설 필요성

이제는 이러한 관점에서 교정청 신설 필요성을 논의할 시기라고 생각한다. 무엇보다 오늘날 교정행정을 둘러싼 환경이 과거와 크게 달라지고 있기 때문이다. 첫째, 마약류 사범과 정신질환 수용자 등 전문적 치료와 재활이 필요한 수용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마약류 수용자는 2021년 3,314명에서 2025년 7,429명으로, 정신질환 수용자는 2016년 3,296명에서 2025년 6,345명으로 늘었다. 이러한 수용자에 대하여 적절한 치료·재활과 교정·교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사회 복귀가 이루어진다면 재범 위험을

¹ 교정청 신설 논의는 1982년 대통령 지시 사항 검토를 계기로 시작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후 행정쇄신위원회,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등에서 반복적으로 검토되었다. 최근에는 채현일 의원 등 13인이 교정에 관한 업무를 법무부 소속 외청인 교정청이 담당하도록 하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17559호)을 2026년 3월 18일 발의하였다.

충분히 낮추기 어렵고, 그 부담은 다시 국민과 사회에 돌아갈 수밖에 없다. 특히 최근 마약 범죄의 증가와 함께 교정시설 내 마약류 사범도 크게 증가하면서 수용 단계에서부터 전문적인 중독 치료와 재활을 제공해야 할 국가의 책임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동시에 전문적인 교육과 처우가 재범 감소에 기여할 가능성도 확인되고 있다. 마약류 사범의 재범율은 최근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교정시설 내 치료·재활 프로그램 역시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2025년 마약류 사범의 재범율은 29.9%로 과거 40% 중반대에서 상당 폭 감소하였고, 같은 해 마약류 사범 재활 프로그램 이수 인원은 6,520명에 이르렀다. 이는 마약류 사범 등에 대한 획일적인 수용 관리에서 벗어나 수용자의 특성에 따른 전담 처우와 전문적인 치료·교육을 강화할 필요성을 보여준다. 앞으로의 교정행정은 단순히 수용자를 안전하게 구금하는 것을 넘어, 범죄의 원인을 완화하고 사회 복귀 가능성을 높이는 전문적 행정으로 발전하여야 한다.

둘째, 범죄로 인한 사회적 비용 관점에서의 접근도 필요하다. 범죄는 피해자 개인에게 손해를 발생시키는 데 그치지 않고 수사·재판·형집행에 필요한 국가 비용, 피해자의 치료와 회복에 필요한 비용, 노동력 상실 등 다양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킨다. 특히 최근 연구에서는 2023년 기준 성폭력 범죄의 사회적 비용을 연간 약 4조 2,190억 원, 범죄 1건당 평균 약 2억 9,000만 원으로 추산하고 있다.²

한편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교정청 신설·운영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비용은 현재 교정행정이 운용하고 있는 전체 예산 및 인력 규모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수준으로 추계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현행 교정본부의 조직·인력을 교정청으로 이관하고 청장·차장 및 행정 지원 인력을 추가하는 것을 전제로, 교정청 신설에 연평균 약 36억 100만 원, 향후 5년간 약 180억 400만 원이 추가로 소요되고 32명의 증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계하였다.³

물론 교정청 신설이 곧바로 범죄 감소나 사회적 비용의 감소로 이어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미 약 2조 원의 예산과 1만 6,000여 명의 인력이 투입되고 있는 교정행정을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운영하고, 필요한 인력·예산·치료 프로그램 및 정책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추진할 조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면 교정청 신설은 충분히 검토할 가치가 있는 정책적 투자라고 할 수 있다.

교정청으로의 개편이 단순히 조직의 명칭이나 기관장의 직급이 바뀌는 데서 그쳐서는 안 된다. 교정행정의 전문성과 독자적인 정책 영역으로서의 중요성을 제도적으로 인정하고, 이에 상응하는 책임과 권한을 부여하는 과정이어야 한다. 현재의 교정본부 체제에서도 정책적 개선은 가능하다. 그러나 마약류·정신질환 수용자에 대한 전문 처우, 과밀수용 해소, 교정시설 확충, 교정공무원의 인력 구조 개선, 첨단 기술의 도입 등 중장기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가 누적되어 있다는 점에서 이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전문적인 조직 체계를 검토할 시점이라 할 것이다.

오래된 숙제들, 책임질 조직 기반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여야 할 것은 교정행정이 국민과 사회의 안전에 직접 연결되는 국가 기능이라는 점이다. 군·경찰·소방과 마찬가지로 교정 역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공공 안전의 한 영역이다. 그럼에도 경찰이나 소방과 달리 폐쇄된 시설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국민이 그 기능과 성과를 직접 체감하기 어렵다. 교정행정이 정상적으로 기능할 때는 그 성과가 외부에 쉽게 드러나지 않는 반면, 도주·폭행·마약 반입 등 사고가 발생하거나 출소자의 중대한 재범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문제가 즉각 사회적으로 부각되는 특성을 가진다.

그럼에도 우리 교정행정은 오랜 기간 여러 구조적 문제를 안아왔다. 헌법재판소는 2016년 인간으로서 필요한 최소한의 공간조차 확보되지 않은 과밀수용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한다고 판단하였고,⁴ 대법원 역시 2022년 교정시설의 과밀수용에 따른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였다.⁵ 그럼에도 과밀수용 문제는 완전히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 2025년 교정시설의 수용 정원은 5만 614명인 데 비해 1일 평균



유동운
교정미래혁신단
서기관

수용 인원은 6만 3,680명으로 수용률은 125.8%에 이르렀다. 전체 재범율을 역시 최근 수년간 20%대 초반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2025년에는 21.2%를 기록하였다.

교정공무원 1인당 담당 수용 인원 역시 최근 다시 증가하는 추세이다. 법무부 『교정통계연보』에 따르면 교정공무원 1인당 1일 평균 수용 인원은 2022년 3.0명에서 2025년 3.8명으로 증가하였다.⁶ 직급 구조 역시 하위직에 편중되어 있는데, 2026년 6월 기준 교정직 정원 중 약 85%가 8·9급 직제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단순히 교정청 신설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교정행정에 필요한 책임과 권한을 보다 명확히 하고, 인력·조직·시설·예산 및 교정·교화 정책을 중장기적 관점에서 일관되게 추진할 수 있는 조직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은 문제 해결의 중요한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에밀 뒤르켐(Émile Durkheim)은 『사회학적 방법의 규칙』에서 “범죄는 정상적이다. 왜냐하면 범죄가 전혀 없는 사회는 완전히 불가능하기 때문이다”라고 하였다. 여기서 그가 말한 ‘정상적’이라는 표현은 범죄가 바람직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어느 사회에서나 일정한 형태의 규범 위반과 범죄가 존재한다는 사회학적 의미일 것이다. 국가는 범죄를 예방하고 그 발생을 줄이기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여야 한다. 그러나 범죄가 존재하는 한 범죄자에 대한 형의 집행과 교정·교화, 사회 복귀를 담당하는 교정의 기능 역시 지속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교정 기능의 존속 여부가 아니라, 변화하는 범죄 환경에 맞추어 교정행정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의 문제이다.

교정청 신설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 교정행정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수용자의 실질적인 교정·교화와 성공적인 사회 복귀를 통하여 재범을 줄이며, 궁극적으로 국민과 사회의 안전을 보다 두텁게 보장하기 위한 수단이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제 교정청 신설을 대한민국 교정행정의 다음 단계로 진지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

²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성폭력사범 심리치료의 재범방지 및 사회적 비용 절감 효과 연구』, 2025.

³ 국회예산정책처, 채현일 의원 대표발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제2217559호) 비용추계, 2026.

⁴ 헌재 2016. 12. 29. 2013헌마42, 판례집 28-2하, 652.

⁵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17다266771 판결.

⁶ 법무부 교정본부, 『2026 교정통계연보』, 2026, 94-95쪽.

나는 엄마 같은 책을, 다시 일어서는 책을 좋아한다

김효선은 50년을 씬 없이 일하다 은퇴한 엄마에게 수영을 가르친 시간을 묶어 『오춘실의 사계절』을 썼다. 땅 짚고 헤엄치는 행운은 없었지만, 엄마 오춘실은 낙심하지 않았다. 17년 차 문학 MD이기도 한 저자가 모두를 위해 ‘다시 일어서는 책’을 추천했다.



대단한 여름이었다. 엄마와 나는 수영장을 나올 때마다 “이제 얼마 안 남았네” 하는 말을 주고받았다. 천장 공사로 몇 달 휴관, 사위장 공사로 보름 휴관, 하는 식으로 몇 년을 제대로 된 공사를 미루고 임시방편으로 대처해온 수영장은 드디어 보수공사를 결정했다. 여름 성수기가 지나자마자 수영장은 새출발을 위해 잠시 문을 닫았다.

9월은 새 수영장과 함께 시작됐다. 초등학교 시설이라 중학교 시설이던 이전 수영장보다 모든 게 너무 낮은 곳에 있었다. 엄마와 나는 수심이 얇고 바닥이 미끄럽고 물맛도 약간 다른, 익숙하지 않은 수영장의 출발선에 나란히 섰다.

『오춘실의 사계절』이라는 엄마의 삶을 계절에 비유한 책을 쓰기 시작했을 때 나는 이 책이 엄마가 학교 청소 일을 퇴직하며 받은 감사패보다는 거창한, 엄마의 삶을 기념하는 무언가가 되길 바랐다. 책은 도서관에서 책을 먹고 자라 서점에서 책을 팔아 먹고사는 사람이 된 내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이었다. 귀하고 아름다운 이야기 수십 백 권이 꽂힌 책장에, 헬렌 켈러와 마리 퀴리 옆에 우직하고 강인하게 버텨온 오춘실의 이야기도 한 권쯤은 놓일 수 있다고 믿고 싶었다. 세상이 잘 보지 못해 자주 다치고 깨진 조그만 우리 엄마를 봐달라고 책으로 세상에 말을 걸고 싶었다. 완성된 책을 보며 엄마가 왜 멋있는 사람인지 가장 몰랐던 사람이 나라는 걸 깨달았다. 엄마는 잘 넘어지는 사람이면서 잘 일어나는 사람이기도 했다. 엄마는 힘내자는 결심도 없이 물 흐르듯 힘을 내는 사람이었다. 나는 엄마 같은 책을, 다시 일어서는 책을 좋아하게 됐다.

아래는 내가 발견한 책, 넘어진 자리에서 들춰본 책의 목록이다. 아버지가 심장병으로 입원한 서울대병원 병실에선 창경궁이 내려다 보였다. 지도 앱을 열어 내가 선 자리의 좌표를 확인했다. 창경궁 뒤뜰 춘당지 연못을 지나면 김금희의 소설 『대운실 수리 보고서』의 주요 무대인 대운실이 있다. 열네 살에 창경궁 옆 원서동 하숙집에서 살며 제대로 깨어진 일이 있는 주인공 ‘영두’는 수리 보고서 작성

일을 맡아 그 장소에서 마음의 실금에 직면한다. 좋았던 한 시절을 통으로 도려낼 정도로 큰 상처였음에도 그 시간을 향해 뚜벅뚜벅 걸어가는, 도망치지 않는 인물이라 나는 영두가 좋았다. 영두의 대운실 가까운 곳에 내가 서 있다는 게 위로가 됐다.

17년간 다닌 신문에 사표를 내고 비로소 운전대를 잡을 결심을 한 장은교는 자신보다 앞서 운전석에 앉은 여성 운전자들의 이야기를 듣기로 한다. 도로교통법령에서 시작해야 운전을 할 수 있는 저자의 이야기에 ‘아주 배짱적인’ 운전 선배들의 이야기를 덧붙인 인터뷰 산문집 『정지선이 출발선이 될 때』는 제목을 자주 곱씹게 되는 책이다. 수영장 레인 끝에 섰을 때, 서소문로 기차길 건널목에 서서 기차가 지나가길 기다리며 ‘간헐할 때 돌파하세요’라는 안내를 물끄러미 볼 때, 나는 1988년 3월 22일 양양 최초의 여성 택시기사가 되기 위해 다리를 건너 도보로 출근한 박삼순 씨를 종종 생각한다. 시동을 걸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말을 생각하며 출근길을 걷는다.

2019년 출간된 엘리자베스 스트라우트의 소설을 나는 조금 늦게, 나로서는 딱 맞는 시기인 울여름에 만났다. 『무엇이든 가능하다』는 비참한 유년시절, 고향 마을에서 떠나 뉴욕에 자리 잡은 작가 루시버턴의 회고록을 중심으로 상처받았지만 훼손되지 않은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인다. 중년 여성 앤젤리나는 노인이 된 엄마 메리와 바닷가에 선다. “물속에 들어가면 다른 건 할 것 없고 그냥 앉아 있지만 하면 돼. 물이 널 받쳐줄 거야. 장담해.” 엄마는 여전히 딸을 안심시킬 수 있다. 메리는 노란 비키니를 입고 바닷가에서 수영을 하고, 앤젤리나는 그런 엄마의 모습을 보고 ‘맙소사’ 하면서도 엄마의 말을 믿고 물에 몸을 맡긴다. 엘리자베스 스트라우트 소설의 마지막 문장을 떠올리며 가을을 헤엄친다.

대수선 공사를 마친 수영장이 그 자리에 돌아오면 우리는 다시 출발선에 서서 물을 믿고 몸을 수면에 띄울 것이다. 다시 시작하려는 마음이 있다면 “누구에게나 무엇이든 가능하다.”



김효선
인터넷 서점 MD,
『오춘실의 사계절』 저자

© 곽은진

교정공무원 5명 중 1명 마음건강 경고등

법무부가 2026년 5월 11일부터 6월 7일까지
전국 교정공무원 9,122명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실태와 주요 위험 요인을 조사했다.

이번 조사에서 마음건강 요인 10개 중 1개 이상에서 위험군에 해당하는 비율은 20.1%로, 2년 전 조사 결과(19.6%)보다 0.5% 증가했다. 교정공무원 5명 중 1명의 마음건강에 경고등이 켜진 셈이다. 평균적으로는 수면 문제, 번아웃, 단절감 등이 높게 나타났으며 위험군에서는 알코올중독(7.7%), 우울(6.4%), 자살 생각(5.9%) 비율이 높았다. 마음건강 위험군은 특정 심리적 위험 요인의 측정 점수가 기준선을 넘어서 임상적 개입이나 관리가 필요한 대상을 의미한다.

마음건강 위험군 비율 단위: %



직무 스트레스 요인 중에서는 ‘과밀수용으로 인한 업무 과중 및 인력 부족(55.0%)’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수용자 관리 측면에서는 ‘수용자 인권을 우선하는 분위기(37.8%)’를, 조직문화에서는 ‘폐쇄된 근무 환경(27.8%)’을 선택한 사람이 많았다. 과밀수용으로 인한 스트레스는 2024년 조사 결과(50.1%)보다 약 5%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무 스트레스 단위: %



정신건강 악화를 완화하는 요인 네 개 영역을 비교 분석한 결과, 조직 연대감(11.43점)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회복탄력성(11.02점), 직무 자부심(10.48점) 순으로 뒤를 이었다. 이는 구성원의 심리적 소진을 막는 데 동료 간 연대와 조직 차원의 지지가 가장 중요한 기제로 작용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자기개방성(10.19점)은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기록, 개인의 감정 표현을 안전하게 나눌 수 있는 소통 창구를 넓히는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마음자원 단위: 점



글로벌 교정 트렌드 리포트

급변하는 글로벌 교정 환경 속, 주목해야 할 현장 소식들.
세계 교정행정의 흐름과 핵심 쟁점을 짚어본다.

USA

AI 기반 지능형 보안 시스템 확산

미국 텍사스주 해리스 카운티 교도소가 AI 감시 카메라 도입에 나섰다. 수용자 계호의 효율을 높이고 응급 상황에 기민하게 대응하는 동시에 교정공무원의 업무 부담을 덜기 위한 조치다. 다만 현장에서는 AI는 어디까지나 보조 수단으로 한정하고 최종 판단은 교정공무원이 내려야 한다는 ‘인간 중심 개입(Human-in-the-loop)’ 원칙이 강하게 강조되고 있다.

출처 abc 뉴스

UNODC

유엔마약범죄사무소, 디지털 재활 국제 기준 제시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가 교정시설의 디지털 재활 원칙을 담은 『교정시설 첨단 기술 도입 지침서(Handbook on the Use of Technology in Prison Settings)』를 발간했다. 이 지침서는 첨단 기술을 단순한 감시와 보안 용도에 국한하지 않고 원격 교육과 직업 훈련, 원격 의료, 가족 접견 및 사회 복귀 지원 등 재활 전반으로 확대 적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아울러 AI 등 디지털 기술을 도입할 때 인권과 개인정보 보호, 비차별성 보장, 그리고 사람에 의한 최종 의사결정을 핵심 원칙으로 꼽으며, 첨단 기술과 수용자 재활이 균형을 이루는 교정 모델을 제시했다.

출처 UNODC 공식 누리집

UK

교정시설 과밀화와 ‘조기 석방’ 논쟁 심화

영국에서는 교정시설 과밀 문제가 매우 심각해지면서 수용자 조기 석방을 통해 수용률을 낮추는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당초 약 6,000명의 조기 석방이 검토됐으나 사회적 반발 이후 5,000명 수준으로 축소됐으며, 강력범죄·중범죄자의 조기 석방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수정됐다. 이와 동시에 전자발찌 부착 등 사회 내 감독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출처 『더 가디언』

Europe

살인적 폭염, 교정정책 이슈로 부상

기록적인 폭염이 덮친 유럽에서 냉방 시설 부족과 과밀수용 문제가 맞물리면서 교정시설 내 안전 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수용동 내부 온도가 급격히 상승하자 각국 교정 당국은 긴급 대책 마련에 나섰다. 프랑스는 추가 샤워·식수·선풍기를 허용하고, 이탈리아는 약물·알코올중독 수용자 가택 재활을 확대했다. 벨기에 역시 정신질환 수용자의 건강 관리 조치를 강화했다. 유럽 주요국의 평균 수용률은 프랑스 141%, 이탈리아 140%, 벨기에 121% 선이다.

출처 로이터 통신

“오운완보다 ‘오헌완’이라고 생각해요” 장흥교도소 서한결 교도의 216번째 헌혈

스무 살에 첫 헌혈을 실천한 서한결 교도는 서른 살 8월에 216번째 헌혈을 했다. 그에게 헌혈은 마치 ‘오운완(오늘 운동 완료)’ 같은 것, 퇴근 후 맛있는 저녁식사처럼 즐거운 일이다.

2025년 9월에 입직한 서한결 교도는 이제 막 교정공무원 생활 1년을 맞이하는 중이다. 올해로 만 서른 살, 대학에서 간호학을 전공했고, 4년간의 간호사 생활을 뒤로하고 교정공무원이 됐다. MBTI는 ISTP, 현실적이고 실용적이며 감정 과잉 없이 담백한 성격이다. 최근 그는 태어나 처음으로 신문에 이름을 올렸다. 누적 헌혈 횟수 200회를 기록해 헌혈유공장 명예대장을 받은 데다 함께 풋살 경기를 뛰던 중학생 형제의 어머니를 위해 선뜻 헌혈증을 기증한 행동이 누군가의 눈에 띈 것이 이유다.

“헌혈증이 필요하다는 소식을 듣고 반사적으로 ‘제가 드릴게요!’ 했던 것 같아요. 저에게 헌혈증이 있으니까요.” 깊이 생각할 이유도, 망설일 필요도 없는, 그에게는 당연하고 쉬운 선택이었다. 헌혈을 시작한 건 대학교 새내기 시절이었다. 그가 행하는 혈장 헌혈의 1년 최대 횟수는 24회, 한 번도 거르지 않는다고 가정할 때 8년 4개월이 걸린다. 그는 어쩌다 ‘일상적’ 헌혈을 하게 된 걸까? 헌혈 절벽 시대에 만난, 존재 자체로 귀한 청년에게 이유를 물었다.

‘어떤 사람일까?’ 궁금했어요. 미디어에 등장하는 헌혈 유공자는 많지만 서른 살 청년이 주인공인 경우는 드물더라고요. 마침 이름도 서한결, 행보와 들어맞고요.

이름은 ‘한결같다’는 뜻은 아니에요. 한수 한(漢)에 불빛 결(焔), 큰 물과 같은 포용력을 지니고 불처럼 세상을 밝게 비추라는 뜻입니다. 아직 이름값을 제대로 하고 있지는 못한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는 바람을 품고 살고 있습니다.

헌혈과 교정공무원, 두 선택이 닮았다는 생각도 했어요. 교정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기 전까지는 간호사로 일했어요. 주로 정신건강의학과에서 근무했는데요. 어릴 때부터 사람의 심리에 관심이 많았거든요. 환자들을 만나면서 더 많은 것이 궁금해졌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어떤 환경과

결핍을 거쳐서 여기까지 왔을까?’ ‘왜 위기나 상처가 나쁜 선택으로 이어지는가?’ 그런 물음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우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중 ‘교장’이라는 일과 마주치게 된 거예요. 그동안 해온 질문에 답을 줄 수 있는 일, 동시에 사람을 회복시키는 데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일이라고요.

헌혈유공장 명예대장을 받았는데, 애초에 명확한 목표가 있었는지 궁금해요.

목표를 세우고 움직이는 편은 아니에요. 헌혈은 우연히 시작했고 좋아서 계속했어요. 대학교 1학년 때 헌혈버스 앞에서 캠페인 피켓을 든 선배를 만난 게 계기였어요. 가벼운 마음으로 버스에 올랐고요. 베드에 누워서 안내 책자를 봤는데, 그때 마음이 움직였어요. “혈액은 인공적으로 만들 수도, 대체할 수도 없다.” 혈액은 오직 인간의 몸에서만 얻을 수 있는 생명 자원이거든요. 새내기라 그랬는지 ‘나이트게일 선사’도 한몫했던 것 같습니다. “나는 일생을 의롭게 살며”로 시작하거든요. 그다음부터는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 한 꼬박꼬박 헌혈을 했어요. 한 달에 두 번씩이요. 간호사로 일할 때는 물론, 교정공무원 입직 후에도 멈춘 적은 없습니다. 가끔 종교가 뭐냐고 묻는 분들이 계신데, 어릴 때는 성당에 다녔지만 지금은 무교입니다.

‘1개월에 2회’ 루틴을 지키려면 그야말로 바른 생활을 해야 할 것 같아요. 건강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저는 태어나서 담배는 한 번도 피운 적이 없어요. 술도 자주 마시지 않는 편이고요. 공시생 때 체중이 81kg까지 나갔는데, 합격 후 운동으로 15kg 정도 감량했어요. 지금은 복싱을 하고 있습니다. 야간부 일을 마치면 바로 복싱장으로 가요. 집에 들르면 가기 싫어질 것 같아서요, 하하. 밤에 잠이 안 오면 줄넘기를 합니다. 한 번에 쉬지 않고 3,000개 정도 가능해요.





누적 헌혈 횟수
30회 시에는 은장,
50회 시 금장,
100회 시 명예장,
200회를 기록한 이에게는
명예대장이 주어진다.
서한걸 교도는 서른 살에
네 개의 헌혈유공패를
갖게 됐다. 2026년
8월 30일에는 216번째
헌혈증을 받았다.

헌혈증을 기부한 스토리도 빼놓을 수 없죠. 친구도, 지인도, 가족도 아니라 더욱 눈길이 갔어요.

복싱장에 다녀와서 쉬고 있었는데 카카오톡 알림이 울렸어요. 풋살 동호회 선배님이 헌혈증 있는 사람을 찾고 계시더라고요. 장흥중학교 학생 어머니가 위독하시다고, 혈액이 급하게 필요하다고 하시는 거예요. “제가 드리겠다”고 하고 나니, 헌혈증이 본가에 있다는 게 생각나서 목포로 달려갔어요. 장흥에서 제일 가까운 헌혈의 집이 목포에 있거든요. 아깝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어요. 이런 순간을 위해서 헌혈을 해왔으니까요. 오히려 다행이었죠. 이전에도 기증한 적이 있어서 제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얼마나 드려야 하는지 알고 있었으니까요.

헌혈을 이어나가고, 또 생명을 나누는 데 종교적 소명이나 운명적 사건 같은, 특별한 계기가 없다는 점이 더욱 놀라워요. ‘극단적 이타주의자’를 만나고 있구나, 실감하는 중입니다.

제가 그런 사람인지는 모르겠어요. 헌혈 외에 기부나 봉사도 꾸준히 해왔고, 저에게는 하는 쪽이 편하고 자연스러워요. 인터뷰를 준비하면서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진짜 특별한 계기가 없었더라고요.

장흥교도소에서 사계절을 보냈어요. 그사이 롤모델을 찾았는지 궁금합니다.

박흥열 교도관님의 행적을 따르고 싶어요. 2011년 소말리아 해적이 우리 군에 생포된 적이 있어요. 당시 부산구치소의 한 교도관이 재판장에서 통역을 맡아 모두를 놀라게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영어도, 일어도 아닌 소말리아어라니! 너무 놀라워서 찾아봤죠. 그분은 해적들이 구치소에 입소하자 소말리아어를 배우기 시작했대요. 학원이 있을 리 없잖아요. 해외에서 회화책을 구입해서 독학하고, 해적들과 대화를 나누며 언어를 익힌 거예요. 그분이 밝힌 이유는 하나였어요. 교도관은 수용자들과 소통해야 하는 사람이니까요.

‘얼마나 좋은 교도관이 되고 싶은지 감도 안 와.’ 답변을 들으면서 이 유행어가 생각났어요. 좋은 교도관이 되기 위해 특별히 하고 있는 공부가 있을까요?

쉬는 날에는 도서관에 가요. 외국어 공부도 하고 수용자 심리 관련 논문도 보고 그래요. 처음 야간부 근무를 시작할 때는 업무를 파악하는 게 급선무였죠. 수용자들이 은밀하

게 사용하는 언어, 그들의 생활습관 같은 데 관심이 많았어요. 지금은 수용자들 마음이 궁금해요. 선배님들께 수용자 심리 파악이 중요하다는 조언도 많이 듣고 있고요. 24시간 동안 방 안에 셀프 감금한 적도 있어요. 갇혀서 생활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더 이해하고 싶어서요.

의료인으로 일한 시간은 교정공무원 서한걸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언젠가는 의료과에서 근무하고 싶다는 생각도 해요. 하지만 그 전에는 수용동 안에서 쓰임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를 위해서 응급처치 공부도 계속하고 있어요. CPR이나 뇌전증으로 인한 쇼크 대응 프로토콜도 고정돼 있지 않거든요. 어떻게 달라졌는지 알아야 해요. 올해만 세 차례 응급 상황에 투입됐어요. 질식될 뻔한 상황을 막은 적도 있고, 하지만비 수용자 처치를 돕기도 했고요.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는 점도 뿌듯했지만, 무엇보다 저로 인해서 우리 팀 업무가 순탄하게 진행될 수 있어서 좋았어요. 더 이상 문제가 커지지 않고, 일을 잘 마무리하는 데 도움이 된 거잖아요. 지금은 그제저의 ‘쓰임’이라고 생각해요.

한국은 청년 헌혈 비율이 높아요. 과거에 비해 낮아졌다고 하지만 여전히 55% 수준이라고 들었습니다. 청년 헌혈이 그만큼 중요한 거죠. 헌혈을 망설이는 청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을까요?

돈을 기부할 수도 있고, 봉사활동을 할 수도 있지만, 생명과 직결된다는 점에 헌혈의 특별함이 있어요. 사람들이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지점도 있는데요. 첫째는 헌혈이 효율 좋은 활동이라는 거예요. 내 혈액을 기증함으로써 한 번, 헌혈증을 나눔으로써 또 한 번 생명을 나눌 수 있거든요. 둘째는, 이건 많은 사람에게 알리고 싶은데요. 헌혈을 하면 건강해집니다. 진짜예요. 활성산소가 건강에 좋지 않다는 건 들어보셨을 거예요. 헌혈을 하면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효소가 증가해요. 과다한 철분도 제거해주고, 콜레스테롤 산화도 막아주고요. 미니 건강검진이기도 해요! B형·C형간염을 비롯해서 혈액으로 알 수 있는 질병이 제법 많거든요. 콜레스테롤 수치나 혈중 요소와 질소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싶다면 헌혈만 한 게 없어요. 최고의 장점은 기분이 좋아진다는 거예요. ‘오늘 좋은 일 하나 했구나!’ 그 생각만으로도 조금은 행복하잖아요. 오운완(오늘 운동 완료) 같은 거죠. 좋은 매일이 쌓여서 좋은 인생이 된다고 생각해요.

글 정평화 사진 이윤키



왼쪽부터 이창재 교사, 배기웅 교감, 정학열 교위, 송성진 교사.

버려진 자전거에서 달리는 ‘노랑이’로!

폐자전거를 모두의 자전거로 변신시키자는 생각이 실현되는 데는 채 3개월도 걸리지 않았다. 해야 할 일이라면 일사천리로, 그것이 경상도 사나이의 기세다.

공영 자전거 띄운
경북북부제1교도소
시설과 4인방

청송으로 가는 길은 일종의 판타지다. 조선시대 실학자 이종환이 ‘눈과 마음을 놀라게 하는 산’이라 했다는 주왕산 자락의 벨벳 같은 질감, 때마침 가을이라면 찬란한 색계(色戒)에 마음마저 물든다. 이 풍경 어딘가를 자전거로 달리는 상상을 하며 경북북부제1교도소에 다다랐다. 사실 상상은 이미 현실이 돼 있었다. 이름은 ‘노랑이’, 지난 7월 경북북부제1교도소에 등장한 공영 자전거 시스템이다. 어쩌서 그런 이름을 갖게 됐는지는 노랑이를 보자마자 알 수 있다. 어떠한 색도 섞이지 않은 순수한 노랑, 필터링 따위는 거부하는 경상도 사나이들의 기개가 단숨에 느껴진다. 노랑이가 얼마나 유용한 선택인지에 대해 말하려면, 경북북부제1교도소 시설과의 역할을 먼저 말해야 한다. “전국에 시설과가 있는 교정시설이 몇 없습니다.” 배기웅 교감은 첫 배명지였던 경북북부제1교도소로 돌아와 시설과 2회 차 근무 중이다. 널리 알려졌다시피 이곳 청송에는 네 개의 교정시설이 모여 있다. 1981년 약 80만 평(264만㎡) 부지에 조성됐으며, 수용 정원은 2,700명에 달한다. 푸른솔아파트와 비상대기숙소를 합친 거주 세대는 644세대, 상주 인원은 1,000명을 훌쩍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거주 인원만 놓고 봤을 때, 군청 소재지인 청송읍 전체와 맞먹는 규모다. 경북북부제1교도소 시설과는 이 거대한 마을의 인프라를 24시간 관리하는 컨트를 타워다. 그들은 왜 공영 자전거 시스템에 주목했을까? 질문에 대한 대답 또한 그 역할 안에 있다.

Part 1

버스 배차 간격 1시간, 공영 자전거가 바꾼 일상

“당시 저희 과 관리계장이었던 한성우 교감의 아이디어예요. 여기 저기 쌓여 있는 폐자전거가 마음에 걸렸던 모양입니다.” 정학열 교위가 밝힌 노랑이의 시작은 폐자전거 자체였다. 청송은 경북 지역 젊은 교정공무원들의 필수 코스, 전출하면서 미처 가져가지 못한 자전거가 청송에 남게 된 것이다.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는 방법은 ‘폐기’일 테지만, 경북북부제1교도소 시설과는 ‘부활’을 선택했다. 그 이유의 중심에는 직원들의 일상이 있다.

“우리 직원들에게는 이곳이 생활의 터전이에요. 오시는 길에 편의점이 보였을 겁니다. 체육관도 보셨을 거고요. 이 안에 세탁실과 독서실이 있고, 곧 탁구장도 문을 열어요. 하나의 ‘동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직주근접(직장과 주거지가 가까운 상태)이긴 한데, 걸어서 출퇴근하기에는 또 맙니다. 장을 보거나 외식을 하러 나가는 진보면까지도 꽤 멀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농어촌 지역이 그렇듯이 버스 배차 간격은 깁니다. 1시간에서 길게는 2시간까지 기다려야 하죠. 택시 잡기도 쉽지 않고요. 공영 자전거가 해답이 될 수 있겠다고 판단했습니다.”

배기웅 교감

현재 노랑이 거치소는 총 네 곳으로 보라미공원 뒤, 비상대기숙소 3동 앞, 복지관 옆, 푸른솔아파트에 있다. 직원들의 동선을 고려한 결정이었다. 노랑이는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7월, 스무 대로 시범 운행에 들어갔다. 무엇보다 직원들의 후기가 궁금했다.

“체육관 앞에 서 있는 노랑이를 보고 어찌나 반갑던지요. 주말에는 노랑이를 타고 데이트하는 커플도 종종 보입니다. 그런 모습을 보니 기분이 괜찮더라고요. 띄약별 아래서 걸어서 출근할 때에 비해서 활력도 있어 보이고요. 원래는 차로 출퇴근했는데 얼마 전부터 노랑이로 바꿨다는 소식도 전해 들었습니다. 마침 자전거 타기 좋은 계절이 왔네요.”

정학열 교위

“제가 서무라서 시설 관련 민원을 접수하고 있거든요. 운행 시작하고 은근히 긴장했는데 반응이 꽤 좋아요. 차로 가기 애매한 거리를 이동할 때 유용하다는 의견이 많았어요. 폐자전거가 방치돼 있던 모습이 보기 흉했는데, 대신 노랑이 거치소가 생긴 거잖아요. 재활용했다는 점을 좋게 봐주시는 분도 많고요. 특히 젊은 층 감성에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이창재 교사

Part 2

일사천리: 반드시 선배가 리더일 필요는 없다

노랑이 구축 과정에서 가장 놀라운 점은 ‘속도’였다. 5월 초 기안, 7월 말 운행. 3개월이 채 걸리지 않았다. 공영 자전거 시스템 구축이 처음인 팀이 속도를 낸 스토리에는 팀워크가 있었다. “노랑이는 저희 시설과 혼자 한 일이 아니에요.” 배기웅 교감의 귀뜸을 따라가본 노랑이 구축 과정은 순탄하지 않았다. 기안 후 폐자전거 수리 경험이 많다고 이름난 대구 업체에 맡겼으나 돌아온 대답은 거절이었다. 위기에 봉착한 시설과에 사회복지과가 손을 내밀었다. “교정위원 중에 자전거 수리 업체를 운영하는 분이 계시다”는 것. 노랑이 기획 취지에 동의한 교정위원은 무상으로 폐자전거에 숨을 불어넣어줬다. 두 부서의 합심 그리고 지역사회와의 동참이 만든 시스템인 것이다. 그런데 후배들이 꿈는 속도의 비결은 따로 있다.

“폐자전거 수거부터 수리 업체와의 협의까지, 다 선배님들이 하셨어요. 배기웅 교감님이 트럭을 몰고 정학열 교위님이 일일이 실으셨고요. 1·2·3교, 직업훈련소를 돌면서 60여 대를 수거하신 거예요. 작동하는 자전거를 선별해서 수리를 맡기는 일도 전부 선배님들이 맡으셨고요.”

송성진 교사

선배가 몸으로 뛰고 후배가 운영 방식을 설계했다. 아직은 시범 운행, 관리와 수리도 시설과 묶인 상태다. 정학열 교위는 “오늘도 배 교감 혼자 타이어를 때웠다”며 선배의 숄선수범을 칭찬했다. 배기웅 교감이 밝힌 몸으로 뛰는 이유는 이렇다. “이 친구들이 저희 소 에이스입니다.” 믿고 맡겼다는 것이다. 두 후배는 선배들의 믿음에 섬세한 설 계로 답했다. 이창재 교사의 레퍼런스는 진천 법무연수원 사례였다.

“진천 법무연수원에도 공영 자전거 시스템이 있어요. 80대 정도 운영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전거 종류부터 운영 시스템까지, 보고 배울 게 많았어요. 언덕 오르기 편한 MTB도 있고, 2인용 자전거도 있더라고요. 무엇보다 QR 코드가 부착돼 있어서 위치 파악, 고장 신고 등을 하기가 쉽다는 점이 눈에 띄었습니다. QR 코드까지는 아니더라도 뭔가 장치가 필요하겠다 싶었죠. 그래서 노랑이에 번호를 부여하게 됐어요. 만드는 게 다가 아니잖아요. 지속적으로 잘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은 거죠.”

이창재 교사

시설과 2년 차인 송성진 교사는 아이디어를 실행으로 안착시키는 팁을 귀땀했다.

“수리에 앞서 타 기관으로 진출한 직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동의를 구했어요. 처음에는 2주 기한이었는데, 만약을 대비해 2주를 더 기다렸죠. 사소해 보이지만 나중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과정들을 꼼꼼히 살피는 게 중요해요.”

송성진 교사

Part 3

새로운 시도를 할 때 가슴에 담아야 하는 것들

“일을 하는 마음은요. 2012년에 처음 시설과 근무를 시작할 때, 선배에게 들은 말이 있습니다. 지금부터너의일은 ‘서포트’다. 어떤 민원이 들어오든 적극적으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지금도 그 말씀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제 주요 업무가 비상대기숙소 관리입니다. 아파트 관리소장 역할이죠. 노랑이도 적극적인 민원 해결의 하나라고 생각해요.”

배기웅 교감

사실 공영 자전거 시스템 구축, 더욱이 폐자전거를 활용하는 일은 하지 않아도 될 일이다. 과정 자체도 성가시고, 이후 관리와 민원 대응을 고려하면 선뜻 나서기 힘든 일이라는 짐작은 어렵지 않다. 문득 시설과의 마음이 공명했다.

“저희 다 같은 직원 아닙니까. 한 다리 건너면 아는 사이이고요. 보안과에 있다가 시설과에 오니 자잘하게 신경 쓸 일이 많더군요. 전에는 어떻게 집행되는지 관심 없던 일들이 내 일이 된 거죠. 민원에 대한 저희 마음은 ‘다 들어주고 싶다’입니다. 규정에 맞지 않아서 못 들어주면 속이 상합니다. 미안하고요. 그래서인지 노랑이 작업할 때는 신이 났습니다.”

정학열 교위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일, 선례가 없던 일을 성공적으로 끝마친 두 젊은 교도관의 가슴속에는 지금 어떤 생각들이 자라고 있을까?

“시작할 때는 걱정이 많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어떤 과정들을 거쳐야 하는지, 무엇을 점검해야 하는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으니까요. 맡고 있는 일도 아직 완벽하게 해내지 못한다고 생각했고요. 그런데 선배님들은 일단 뛰어드시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고 내 일에 책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자고 다짐했어요.”

이창재 교사

“다음에 또 새로운 시도를 해보고 싶어요. 공무원에 대한 고정적인 이미지가 있잖아요. 일 처리가 느리다, 돌다리도 두드린다… 저는 꼭 그렇지만은 않다고 생각해요. 노랑이 구축에 참여하면서 공무원의 추진력을 직접 경험했고요. 무엇보다 좋은 마음으로 한 일에는 좋은 반응이 따라온다는 걸 느껴요. 관리에 대한 걱정을 많이 했는데 직원들 대부분이 사용 후 지정된 자리에 놓아주세요. 예산을 확보해서 고장 등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려고요.”

송성진 교사

스무 대로 출발한 노랑이는 아직 시범 운행 단계다. 여성 수용동이 생긴 경북북부제3교도소 직원들을 위해 여성용 자전거를 마련하고 싶고, 가방을 실을 수 있도록 거치대를 부착하고 싶다는 욕심도 있다. 어쩌면 QR 코드를 앞에 달고 달리는 날이 올 수도 있겠다. 무엇 이든 직원들의 일상이 더 편해지는 방향으로! 아이디어는 계속 샘 솟는 중이다.

글 정평화 사진 이용기

아이디어를 현실로!

나의 ‘한 곳’을 소개합니다

확신이 섰을 때는 열정적으로 추진해요. 그 모습을 보면 옆에서 도와주겠다고 나서고, 많은 사람이 힘을 합치면 일은 자연히 탄력을 받게 되거든요. 혹시 잘못된 방향이면 어떻게 하느냐고요? 그럴 땐 현명한 동료가 말려줄 겁니다. 동료의 힘을 믿으세요!

정학열 교위



송성진 교사



단점보다는 장점을 먼저 보고, 적극적으로 방법을 찾는 것. 시설과를 비롯한 사무 부서는 ‘지원 부서’라는 생각에 한 걸음 뒤로 물러서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적극성을 띄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제때 지원이 이뤄지지 않으면 근간이 무너집니다.

배기웅 교감



설문조사를 활용해요. 시도해보고 싶은 아이디어가 있을 때는 최대한 많은 동료들에게 물어 봅니다. 그 과정에서 제 생각도 정리되고, 빈틈도 메워지더라고요. 동의하는 사람이 늘면서 추진력도 커지고요!

이창재 교사



저도 비슷해요. 혼자 생각하다 보면 일정한 틀에 갇히게 마련인데, 주위에 물어보면 전혀 예상하지 못한 답변이 나오기도 하더라고요. 때로는 1가지 방안이 10가지가 되기도 하고요. 그런 과정을 거치다 보면 더 좋은 방향을 찾아서 나아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창원교도소 '청렴 표어 공모전', 커피트럭으로 열정 부스팅했어요!



가을의 문을 열며 창원교도소가 맨앞에 둔 단어는 '청렴'이다. '청렴 표어 공모전'을 모두의 축제로 만들고 싶은 창원교도소의 마음을 『교정』커피트럭이 응원했다.

“청렴은 자칫 딱딱하게 느껴질 수 있는 주제잖아요. 커피트럭 덕분에 이번 '청렴 표어 공모전'은 특별한 기억으로 남을 것 같아요.” 복지과 이성욱 교사가 방금 건네받은 아이스 아메리카노 잔을 들어올렸다. 창원교도소는 지난 9월 12일 '청렴 표어 공모전'으로 가을의 문을 열었다. 가슴속 청렴 의식을 드높이고 실천 의지를 단단히 다지는 계기를 마련한 것이다. 9월 18일까지 접수된 표어는 교정행정발전협의회 1차 심사를 거쳐, 교도관회의에서 최종 수상작으로 선정된다. 이번 공모전에 눈에 띄는 심사 기준이 있으니 바로 'AI 사용 지양', 인공지능이 아닌 '천연' 지능의 힘으로, 무엇보다 청렴한 공직 생활에 대한 진심과 창의력이 듬뿍 담기기를 바라는 때문이다.



이번 공모전을 더 많은 직원들이 참여하는, 창원교도소의 가을 축제로 만들고 싶다는 마음을 응원한 이가 있으니 바로 『교정』커피트럭! 높고 푸른 가을 하늘이 드리워진 9월 14일, 아침 일찍 문을 연 『교정』커피트럭 앞으로 직원들이 삼삼오오 모였다. “오랜만에 선배님들과 담소를 나눌 수 있어 좋았다”는 보안과 이정태 교사, “덕분에 '청렴 표어 공모전'이 친근하게 느껴진다”는 안희원 청년인턴, “직원들 사기가 한 뼘 올라간 것 같다”는 분류심사와 김용우 교위, “직원들이 어울려 소소한 행복을 나누는 모습 자체가 우리 소의 건강한 청렴 문화를 보여주는 것 같다”는 직업훈련과 한희식 교위... 직원들의 후기는 저마다 달랐지만 『교정』커피트럭이 공모전을 향한 열정에 불을 지핀 것은 분명해 보인다.



커피를 기다리는 동안 직원들의 눈길은 자연스레 공모전 배너로 향했다. '부패는 버리GO, 청렴은 지키GO'. 청렴은 따뜻한 커피처럼, 커피가 그렇듯 공직자의 청렴은 기준과 원칙이 지켜질 때 온전한 향미를 드러낸다. 이번 '청렴 표어 공모전'이 모두의 가슴속 청렴한 진심을 표현하는 작은 축제가 되기를 바라본다. 힘내라, 창원교도소!

구성 편집부 사진 창원교도소



커피트럭 보내드려요!

『교정』커피트럭 응원은 2026년 12월까지 계속됩니다. 기억하고 싶은 순간, 특별한 행사를 앞둔 교정기관은 신청해주세요.

신청 방법

법무부 교정기획과
correct2023@naver.com



나는 교정공무원입니다

「2025 교정본부 홍보 공모전」

웹툰 부문 장려상



이제는 능동시대! 새 교정생활관을 소개합니다

광진구 능동에 신축 이전한 교정생활관이 지난 8월 첫 입주를 시작했습니다.
낮선 곳에서 공부와 일상을 꾸려갈 자녀들의 안전과 편의는 얼마나 꼼꼼하게 챙겼을까요?
새 보금자리를 찬찬히 둘러봤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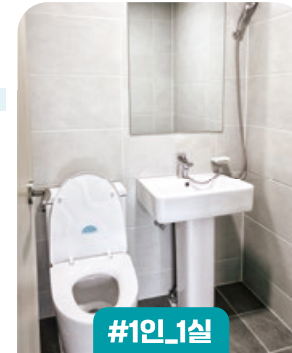
#능동_교정생활관

지상 4층
대지 면적 223.5㎡
연면적 329.21㎡ 규모
13호실로 구성된
단독 건물이에요.

교정공제회가 서울 광진구 능동에 새 교정생활관(교정학사)을 열었습니다. 기존 교정생활관 부지가 재개발 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신축 이전을 추진해 왔으며, 지난해 여름 마침내 그 결실을 맺은 것입니다. 새 교정생활관은 어린이대공원과 인접해 도심에서 쾌적한 환경을 즐길 수 있고, 5호선 아차산역에서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해 대중교통을 이용하기도 편리합니다. 교정생활관은 지방 거주 회원 가족의 주거 부담을 덜고, 자녀들이 학업에 집중하여 빛나는 내일을 준비하는 과정을 돕고자 마련된 공간입니다.

교정공제회는 자녀를 낯선 지역으로 떠나보내는 회원들의 마음을 충분히 헤아리고 있으며, 이번 신축을 통해 회원 자녀의 생활 공간을 확장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회원과 가족의 삶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복지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확대하겠습니다.

교정생활관 구석구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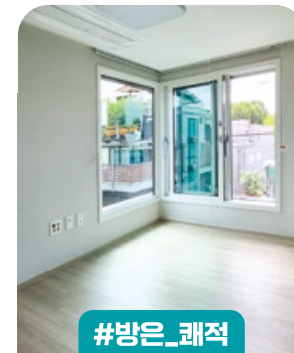
#1인_1실

회원 자녀들이 안정적이고 독립적인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1인 1실로 구성했어요.



#필수가전_완비

각 호실에는 시스템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전자레인지 등 필수 가전이 구비돼 있습니다.



#방은_쾌적

넓찍한 창으로 시원한 바람이 드나들고, 방음과 단열 효과가 뛰어난 이중창을 갖춰 사계절 쾌적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무인_택배함

주거 침입 및 대면 범죄 예방, 물품의 분실 및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무인 택배함을 설치했습니다.



#엘리베이터_있음

최신 승강기가 설치돼 있어 무거운 짐도 부담 없이 옮길 수 있습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귀가에도 든든한 자원군입니다.

Your Story

'소중한 순간'을 보내주세요!

행복한 순간을 공유해주세요. 동료 자랑, 나의 취미, 도전의 순간 등 삶을 풍요롭게 하는 기록이라면 무엇이든 좋습니다.

2장 내외의 사진과 간단한 사연을 적어 보내시면 됩니다.

보내주신 분께는 『교정』이 마련한 선물을 드립니다.

보낼 곳

법무부 교정기획과
correct2023@naver.com



토박이를 따라서, 부산 원도심 여행

부산을 대표하는 풍경은 단연 푸른 바다와 멋진 야경이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다. 부산에서 오래 살아온 사람만이 기억하는 이야기, 부산 거주 30년 차인 주우택 교위와 부산 토박이 남창모 교사가 안내하는 부산의 원도심으로 들어가 본다.



“오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부산역에 사람 많죠?” 남창모 교사의 말대로 부산역은 혼잡했다. 수많은 인파 사이, 부산에 막 도착한 이들의 설렘과 여행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이들의 여운이 한데 뒤섞였다. 첫 행선지는 부산역에서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한 차이나 타운이었다. 준비하게 늘어선 식당 가운데 주우택 교위와 남창모 교사는 ‘마가만두’를 추천했다. 부산교도소 맛집 동호회에서 각각 총무와 섭외부장을 맡고 있는 만큼 음식에 진심인 두 사람의 선택이었다. 자리에 앉자 노릇하고 바삭한 군만두, 촉촉하고 쫄깃한 물만두와 찐만두, 탱글글하고 탐스러운 새우만두가 차례로 식탁에 놓였다. 각기 다른 만두를 맛보는 재미가 쏠쏠했는데, 어느 만두를 베어 물어도 진한 육즙이 흘렀다. 새우와 계란을 푸짐하게



넣어 볶은 새우볶음밥도 별미였다. “어떤 메뉴를 시켜도 실패가 없어요.” 남창모 교사의 호평에 주우택 교위도 한 마디를 보탰다. “군만두와 새우볶음밥 조합을 가장 추천해요. 예상되는 맛인데, 기대한 만큼 맛있거든요.” 배를 든든하게 채운 뒤에는 영도대교를 지나 흰여울문화마을로 향했다. 봉래산 기슭에서 내려온 물줄기가 바다로 굽이쳐 흐르며 하얀 물결을 만든다는 데서 이름이 붙은 흰여울문화마을에는 작은 골목마다 자그마한 주택이 다닥다닥 붙어 있다. 부산으로 모여든 피란민들이 해안 절벽에 삶을 일군 흔적이다. 2010년대부터 도시재생 사업을 통해 낡은 주거지를 리모델링하고 아기자기한 공방과 카페 등이 새롭게 들어섰지만, 집집이 맛당은 좁은 골목 사이로 여전히 사람 냄새가 난다. 『변호인』, 『범죄와의 전쟁』 같은 유명 영화 촬영지나 ‘한국의 산토리니’라는 낭만적인 별명만으로는 설명되기 어려운, 조금은 슬프고 유난히 따뜻한 풍경이다. 이번에는 주우택 교위가 추천한 카페 ‘신기커피영도’로 발걸음을 옮겼다. “영도는 섬이라 대부분 바다를 먼저 떠올리는데요. 여기는 창밖으로 보이는 푸릇푸릇한 대나무숲이 이색적인 매력을 풍깁니다.” 아내와 방문한 뒤로 좋아하게 되었다는 주우택 교위에게 이곳은 색다른 휴식의 공간이다. 향긋한 커피와 폭신한 팬케이크를 즐기며 흔들리는 뱃길을 바라보면 마음에도 바람이 불어온다.





수산물에 비릿한 냄새, 바다를 실은 짝바람, 손님을 부르는 상인들의 목소리는 자갈치시장의 오랜 풍경이다.

해가 뜨는 해질 무렵, 부산의 또 다른 풍경을 만나러 남포동 일대를 찾았다. 자갈치시장과 공장어 골목, BIFF 광장으로 알려진 곳이다. 남창모 교사는 남포동의 매력을 ‘사람 냄새’라고 소개했다. “저한테 남포동은 낡고 바랜 구도심이 아니라, 오래된 만큼 애뜻한 동네예요. 학창 시절에 친구들과 함께 국제시장과 강동시장, 보수동 책방골목을 쏘다니며 놀았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거든요.”

수산물에 비릿한 냄새, 바다를 실은 짝바람, 손님을 부르는 상인들의 목소리는 이곳의 오랜 풍경이다. 북적이는 거리를 지나, 저녁을 먹기 위해 시장 바깥의 ‘금화횡집’에 방문했다. “오마카세가 유행하면서 부산에도 ‘이모카세’, ‘삼촌카세’ 스타일의 식당들이 많이 생겼는데요. 바다를 품은 도시답게 싱싱한 해산물이 코스별로 나옵니다. 여기는 제가 즐겨 찾는 곳이에요.”

남창모 교사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자리돔과 쥐치, 갯장어 등 제철 생선으로 구성된 모듬회에 멍게, 해삼, 소라까지 싱싱한 해산물이 상에 잔뜩 올랐다. 즐거운 이야기가 오가며 젓가락이 쉼 없이 움직이는 저녁, 문득 이들에게 ‘맛있는 한 끼’가 어떤 의미인지 궁금해졌다. 주우택 교사는 망설임 없이 ‘삶의 원동력’이라고 답했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을 색다르게 채우고, 사람과의 거리를 가깝게 하며, 내일을 살아가게 만드는 힘”이라고 그는 덧붙였다. “나이가 들수록 좋아하는 사람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이 행운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산다는 게 다 그런 것 아닐까요?”

두 사람이 안내한 하루는 이렇게 끝났다. 차이나타운에서 시작해 영도 흰여울문화마을과 남포동으로 돌아오는 길마다 피란민의 기다림과 희망, 여행객의 설렘과 여운, 그리운 추억과 평범한 오늘이 커켜이 쌓여 있었다. 그 모든 풍경에 사람이 있다. 부산 원도심에서의 여행은 어쩌면 누군가가 남긴 발자국을 따라가 보는 일인지도 모른다.

“나이가 들수록 좋아하는 사람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이 행운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산다는 게 다 그런 것 아닐까요?”



Eat & Place

부산의 시간과 일상의 맛



① 영도대교

1934년 개통한 우리나라 최초의 연륙교(連陸橋)로, 지금은 사람과 자동차가 오가는 평범한 길이지만 그 위에는 부산의 근현대사가 쌓여 있다. 한국 전쟁 당시 낮선 도시로 떠밀린 수많은 피란민이 헤어진 가족을 만날 날을 기약했던 장소다.

② 자갈치시장

영도대교 아래 건어물시장부터 남부민동 새벽시장 일대까지 이어지는 전통시장으로, 가장 ‘부산다운 맛’이 모여드는 곳이다. 한국 전쟁을 계기로 부산에 모여든 피란민들이 해안가에 정착하면서 시장의 모습이 형성되었으며, 지금도 활기찬 시장 풍경 속에서 신선한 해산물을 만날 수 있다. 근처 부둣가에 정박한 배를 보며 부산의 일상을 가까이에서 살펴보는 것도 이곳을 찾는 즐거움이다.



③ BIFF 광장

부산국제영화제(Busan International Film Festival, BIFF)의 창설을 기념하고 발전을 기원하며 조성된 영화·문화의 거리다. 거리 바닥에 설치된 국내외 유명 영화감독과 배우들의 핸드 프린팅과 조형물에서 영화사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다. 영화 관련 볼거리뿐만 아니라 길거리 음식과 다양한 상점이 모여 있는 곳으로 남포동의 활기찬 거리 문화를 경험하기 좋다.

④ 스톤스트리트

남포동 골목에 자리한 이탈리아 레스토랑으로 샐러드와 피자, 파스타와 리소토 등을 다양하게 선보인다. 담백하고 쫄깃한 도우와 신선한 재료가 조화로운 화덕 피자도 인기가 많다. 시그니처 메뉴는 신선한 청포도와 매장에서 직접 만드는 리코타 치즈를 올린 청포도 샐러드로, 상큼한 맛을 좋아한다면 맛볼 만하다.

⑤ 이재도피자

1992년부터 남포동을 지켜온 부산의 로컬 피자 전문점이다. 두툽한 도우와 폭포처럼 늘어나는 치즈, 압도적인 비주얼로 사랑받고 있다. 본점은 남포동의 오래된 명물로 자리 잡았으며 현재는 서면과 전포, 명지대 등 부산 곳곳에서 지점을 운영한다.

글 김혜원
사진 이용기, 국가유산청(영도대교),
부산관광공사(스톤스트리트, 이재도피자)



예금보다 어렵고 주식보다 지루한데... 왜 큰손들은 채권을 살까?

왜 기관과 큰손들은 채권을 선호하고, 나는 채권을 모를까?
사고팔기부터 시장 읽기까지,
투자에 앞서 알아야 할 최소한의 채권 상식.



개인이 돈을 굴릴 수 있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은행에 맡기는 예금, 증권사를 통해 매매하는 주식, 그리고 정부나 기업에 돈을 빌려주고 받는 채권입니다. 가장 익숙한 상품은 예금입니다. 주식도 최근에 많이 대중화됐습니다. 채권은 여전히 낯섭니다. 하지만 시장 규모로 볼 때 채권은 주식과 맞먹을 정도로 큼니다. 특히 국민연금과 같은 기관, 자산이 많은 큰손들은 주식보다 오히려 채권을 더 선호합니다. 채권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부자들이 선호할까요?

채권은 차용증서다

기업이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돈을 빌려야 합니다. 가장 손쉬운 방법이 은행 대출이죠. 하지만 은행 돈은 담보가 필요하고 장기로 빌리기도 힘듭니다. 두 번째 방법은 주식시장에 주식을 상장해 투자금을 모으는 것입니다. 담보는 필요 없고 이자도 나가지 않지만 투자자에게 일정 부분의 지분을 줘야 합니다. 만약 지분이 적다면 경영권 분쟁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채권을 발행하는 겁니다. 채권은 돈을 빌리고 발행하는 차용증서입니다. 3년, 5년 혹은 10년 동안 돈을 빌리고 그동안 이자를 주겠다는 약속인 것이죠. 채권은 신용을 이용해 장기로, 고정된 금리로 돈을 빌릴 수 있다는 점에서 매력적입니다. 예컨대 친구에게 100만 원을 빌려준 뒤 1년 뒤에 5%의 금리를 적용해 105만 원을 받겠다고 약속한 문서가 채권입니다.

금융시장의 원조, 채권

흔히들 주식을 ‘금융시장의 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주식 훨씬 이전에 채권이 등장했습니다. 고대 그리스와 로마시대 때 도시국가는 전쟁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부유한 귀족들에게 차용증을 써주고 돈을 빌렸습니다. 중세 이탈리아의 베네치아와 피렌체에서는 상거래를 위해 돈을 빌리고 채무증서를 발행했습니다. 주식회사가 발명되기 훨씬 이전, 은행이 설립되기 훨씬 이전에도 개인 간 금전 거래는 존재했습니다. 그러니까 채권은 금융시장의 원조인 셈입니다.

이자 받는 채권과 예금, 다른 점은

예금과 채권은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다는 점에서 비슷합니다. 가장 큰 차이는 예금자 보호 기능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예금은 있습니다. 은행이 파산해도 1억 원까지는 보장됩니다. 하지만 채권은 발행 주체가 파산하면 이자는 물론 원금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즉 은행에 5,000만 원을 예치했다

면 은행이 파산해도 5,000만 원을 돌려받습니다. 하지만 은행이 발행한 채권(은행채)을 산 후 해당 은행이 파산하면 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채권의 안전도는 채권에 부여된 신용등급을 보면 가늠할 수 있습니다. AAA, AA, A 등 신용도가 높은 채권은 어지간해서는 파산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자는 낮습니다. BBB 이하 신용도가 낮은 채권(정크본드)은 위험하지만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차이는 채권은 만기까지 기다리지 않고 중간에 시장에 내다 팔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장 상황에 따라 별도의 수익을 얻거나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반면 예금은 은행과의 계약일 뿐, 금융상품으로서의 다른 기능은 없습니다.

채권에도 ‘종류’가 있어요

채권 발행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국채(미국, 한국 등 중앙정부), 지방채(서울시, 경기도 등 지방자치단체), 특수채(한전, 도로공사 등 공기업 또는 공공기관), 회사채(기업), 금융채(은행, 보험 등 금융사), 하이일드채(저신용 기업) 등으로 구분됩니다. 또 채권을 발행하면서 어떤 조건을 붙이느냐에 따라서 전환사채(CB, 나중에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채권), 신주인수권 부사채(BW, 정해진 가격으로 새 주식을 살 권리가 있는 채권)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조건을 붙인 채권을 발행하는 이유는 금리를 낮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채권을 가진 사람이 원할 때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특혜를 준다면 그만큼 이자를 적게 줘도 되는 거겠죠.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 2025년 10월~2026년 9월

4.837%
▼-0.003



뉴스에서 흔히 접하는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처음 발행될 때 정해진 표면금리가 아니라, 시장에서 실시간 거래되며 매순간 변하는 만기수익률(YTM)을 뜻합니다. 차트에서 보듯 연초 4.0% 안팎이던 시장 수익률은 최근 4.8%까지 지속적으로 변동하고 있습니다.

채권의 두 가지 금리: 표면금리와 수익률

채권이 금융상품인 이유는 주식처럼 시장에서 거래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채권에는 두 가지 금리가 존재합니다. 발행될 때의 금리와 유통될 때의 금리입니다. 원금 100만 원(액면가)에 3년 만기 연 5% 금리로 발행된 채권이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 채권 소유자는 매년 5만 원의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원금은 3년 뒤에 받습니다. 이때 연 5% 금리를 표면금리(쿠폰금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채권 소유자가 갑자기 돈 쓸 일이 생겼습니다. 3년 동안 기다릴 수 없다면요. 그러면 이 채권을 시장에 내다 팔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시장 금리가 10%라면 어떨까요? 새로 발행되는 채권을 사려 하지, 이자를 5%밖에 안 주는 채권을 사려 하지 않을 겁니다. 이 채권을 팔려면 결국 100만 원인 채권을 80만 원이나 70만 원으로 낮춰 팔아야 합니다. 만기가 많이 남아 있을수록 가격을 더 낮춰야 합니다. 이때 발생하는 금리 차이를 수익률이라 부릅니다. 원래 채권에서 얼마간 수익을 보장해야 거래가 된다는 얘기지요. '10년물 국채 금리가 4.5%로 상승했다'고 할 때 이 금리는 통상 수익률을 말합니다. 수익률은 시장 상황에 따라 계속 변동합니다.

채권에 투자하기 전에 알아야 할 것들: 사고팔기부터 시장 읽기까지

채권과 주식은 서로를 싫어한다?

채권은 상대적으로 주식보다 안전한 금융상품으로 평가됩니다. 채권 금리가 상승하면 투자자들이 굳이 주식에 투자할 이유가 없겠죠. 주식시장에서 돈이 빠지면 주가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채권 금리가 낮으면 투자자들은 수익률을 찾아 주식시장으로 올 수 있습니다. 채권 금리에 금융 투자자들이 관심을 기울이는 이유지요. 만약 미국 국채 금리가 상승하면 해외 투자자들의 자금이 미국 국채 시장으로 이동해 우리나라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이 약세를 보일 수 있습니다. 또 해외 투자자들이 국내에서 자금을 건어들이기 때문에 원화 약세(환율 상승)가 되기도 합니다. 미국 국채 금리에 우리가 민감한 이유지요.

왜 큰손들은 채권에 투자할까

연기금, 보험회사, 기금, 중앙은행 등 기관과 고자산가들은 주식보다 채권을 선호합니다. 이유는 채권의 안전성 때문입니다. 채권은 연 5% 식으로 수익이 제한돼 있어 크게 자산을 불

리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량 채권을 산다면 손실을 볼 가능성은 0에 가깝습니다. 돈을 크게 벌기보다 갖고 있는 자산을 지키며 안정적으로 현금을 운용하고 싶다면 주식보다는 채권이 나은 것이죠.

채권 금리는 언제 상승할까

채권 금리는 시장에서 돈을 구하기 어려울 때 상승합니다. 예를 들어 경제가 불안하면 시장에서 돈을 구하기 힘들어지죠. 이를 '자금 경색'이라고 하는데, 이때 돈을 빌리려면 많은 이자를 줘야 합니다. 경제위기나 금융위기 때 채권 금리가 폭증하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금리는 경기가 좋을 때도 상승할 수 있습니다. 대규모 투자가 이뤄지면 돈을 필요로 하는 곳이 많아지고, 이에 따라 금리가 상승할 수 있습니다. 전자의 경우 '나쁜' 금리 상승, 후자는 '좋은' 금리 상승이라고 부를 수 있겠네요. 채권 금리 상승 자체로 좋나 나쁘다 말할 수 없습니다. 그 상승의 배경이 더 중요합니다.

채권 투자는 어떻게 할까요

먼저, 채권을 발행할 때 살 수 있습니다. 공모주 청약과 유사합니다. 증권사 앱에서 'OO기업 회사채 청약'이라는 공고가 뜹니다. 이미 발행된 채권을 주식처럼 매입할 수도 있습니다. 증권사 앱에서 '채권'을 선택하면 거래되고 있는 개별 채권 목록이 뜹니다. 만약 개별 채권 거래가 부담스럽다면 채권 ETF를 사는 방법도 있습니다. 채권 관련 단어가 붙은 ETF를 사면 됩니다. 예를 들어 'KODEX 종합채권 액티브' 같은 거죠. 매입한 채권 ETF를 적정가에 매도하면서 투자자는 수익을 남길 수 있습니다. 채권 혼합형 펀드도 있습니다. 주식과 채권에 적절한 비율로 투자하는 펀드인데, 펀드에 가입했다 해지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챙길 수 있습니다. 채권 투자는 시장 상황이 좋지 않다면 원금 손실을 볼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야 합니다. 주식처럼 말이죠.



박병률

『경향신문』 경제 에디터. 27년 동안 기자로 일하면서 『경제를 모르는 그대에게』, 『OTT로 쉽게 배우는 경제 수업』을 비롯해, 여전히 경제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이들을 위한 책을 써왔다.

덕업일치: 이제는 좋아하는 일을 해야 한다

좋아하는 일을 좇는 것만으로는 행복을
채울 수 없다. 내가 가장 잘하는 분야를 발견해
일의 주도권을 쥐 때, 비로소 지치지 않는
덕업일치(德業一致)의 문이 열린다.

지금껏 살아오면서 내가 진짜 하고 싶은 일을 했던 때가 얼마나 될
까? 가족을 부양하고 생계를 지키기 위해 우리는 늘 ‘하고 싶은 일’
보다 ‘해야 하는 일’을 앞세우며 달려왔다. 그렇기에 다가오는 은퇴
는 막연한 불안인 동시에 생애 처음으로 온전히 ‘내가 좋아하는 일’
을 해볼 수 있는 간절한 기대이기도 하다.

하지만 좋아하는 마음 하나만 앞세워 뛰어들기엔 은퇴 후 현실이
녹록지 않다.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돈도 버는 ‘덕업일치’는 좋아하
는 대상에 흠뻑 빠지는 열정(德)에, 지난 세월 치열하게 쌓아온 역량
(業)이 맞물릴 때 비로소 완성된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자. “나에게 은퇴 후 삶이란 어떤 의미인가?” 섣뚱

답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질문을 곱씹을수록 생각의 결
은 섬세해진다. 강의 현장에서 만난 이들도 처음엔 망설이지만, 결
국 답을 찾아 내놓는다. ‘오랜 수고에 대한 보상’, ‘가족과 보내는 시
간’, ‘내가 주인공이 되는 삶’... 내가 찾은 나의 욕구이자 은퇴 후 삶
에 대한 해답이다. 원하는 삶을 현실로 만드는 가장 강한 원동력이
다. 이제는 역지로 버티는 노동이 아니라, 오래도록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일을 준비할 시간이다. 첫 단계는 내가 좋아하고 잘하는 일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다.

나의 탁월성을 나타낼 수 있는 분야는?

수년 전 평창에서 파프리카 스마트팜을 운영하는, 화훼농가의 아들
로 태어난 대표를 만난 적이 있다. 그는 대도시에서 고된 직장 생활
을 하던 중 우연히 TV를 통해 스마트팜을 알게 됐다. 대학에서 이공
계를 전공한 그는 관심을 가지고 관련 영상을 찾아봤다. 그러던 중
부친이 화훼농가를 이어받으라고 하셨다. 마침 직장 생활이 힘겨웠
던 그는 퇴사를 결정하고 평창으로 향했다. 아버지의 농장 한쪽에
자그마한 스마트팜을 조성했다. 몇 년 후 화훼농장 전체가 스마트
팜으로 바뀌었다. ‘관심 있는 분야란 내가 잘할 수 있는 분야다. 생
각해보면 누구에게나 그런 분야가 있다.

은퇴 후 덕업일치를 이루려면 나의 자원을 다음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누어 점검해야 한다. 첫째는 ‘내가 관심 있는 분야’로 평소 눈길
이 가고 틈날 때마다 책이나 영상을 찾아보는 영역이다. 둘째는 ‘내
가 잘하는 분야’이다. 지금까지 살아오며 쌓은 전문성이 담겨 있을
가능성이 크다. 마지막으로 ‘내가 즐길 수 있는 분야’를 살펴보자. 등
떠밀려 해야 했던 일이 아닌, 해보지 않았더라도 생각만 해도 가슴
이 뛰는 분야다. 아래 표에 세 영역에서 떠오르는 키워드와 그 이유
를 솔직하게 적어보자.

내가 관심 있는 분야	이유
내가 잘하는 분야	이유
내가 즐길 수 있는 분야	이유

손바닥에 희망 직업군 올리기

이제 공통점을 걸어 올릴 차례다. 앞서 적은 세 분야의 접점, 즉 ‘관심
있고, 잘하며, 즐길 수 있는’ 분야를 적어보자. 공통 분야는 하나가 아
닐 수 있다. 당연하다. 중요한 것은 이를 바탕으로 형태를 구체화해
나가는 작업이다. ‘공통 분야’ 중 하나가 요리라면 ‘세부 분야’는 조리
일 수도, 식재료 재배일 수도 있다. ‘특정 분야’를 적을 때는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들어가 ‘버섯 농장 운영’이나 친환경 농업인 ‘아쿠아포닉스
농장 운영’처럼 손에 잡히는 구체적인 업(業)으로 발전시킨다.

마지막 ‘특정 분야’를 적을 때는 그 어느 때보다 현실적인 눈으로 점
검해야 한다. 자신의 역량과 가용 자금, 준비 기간, 조력자 유무, 시장
성까지 입체적으로 따져보기를 권한다. 그동안 쌓아온 경력이 든든
한 밑거름이 될 수도 있고, 믿을 만한 파트너나 꾸준히 공부해온 지식
이 길잡이가 되어줄 수도 있다. 이 표의 맨 오른쪽 칸에 남겨진 두세
가지 선택지가 바로 당신이 누구보다 즐겁게, 오래도록 해낼 수 있는
‘은퇴 후 직업’이다.

공통 분야	세부 분야	특정 분야



최승영
(주)마스터피스 얼라이언스 및 은퇴 준비 유튜브
‘유브랜드’의 대표로 다양한 주제의 강의와 코칭을 하고
있다. 2021년 코칭 기반 은퇴 준비서 『빨리 은퇴하라』에
이어 2025년 『경험과 경력에서 은퇴 자원 찾기』를
출간했다.

안전 혹은 위험, 나의 음주생활은?

마음나래 프로그램과 함께하는 『마음 돌봄 워크북 시리즈』 5편의 주제는 ‘술’입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의 12%가 고위험 음주자라고 해요(2025년 기준). ‘혹시 나도 그중 1명이 아닐까?’ 조금이라도 걱정된다면 지금 당장 점검!

Step 1

혹시 나도
고위험
음주자일까?

알코올사용장애 선별 검사

(Alcohol Use Disorders Identification Test, AUDIT-K)

지난 1년간의 음주 습관을 기준으로 체크(✓)해주세요.
질문에 나오는 1잔은 술의 종류와 관계없이 1잔의 양을 의미합니다.

질문문항	0점	1점	2점	3점	4점
① 술을 얼마나 자주 마십니까?	전혀 안 마심	월 1회 이하	월 2~4회	주 2~3회	주 4회 이상
② 술을 마시는 날에는 보통 몇 잔 정도 마십니까?	1~2잔	3~4잔	5~6잔	7~9잔	10잔 이상
③ 한 번의 술자리에서 소주 1병(또는 맥주 4병) 이상 마시는 경우는 얼마나 자주 있습니까?	전혀 없다	월 1회 미만	월 1회	주 1회	매일
④ 술을 마시기 시작하면 멈출 수 없었던 적이 얼마나 자주 있었습니까?	전혀 없다	월 1회 미만	월 1회	주 1회	매일
⑤ 평소에 할 수 있었던 일(학업, 업무, 가사 등)을 음주 때문에 하지 못한 적이 얼마나 자주 있었습니까?	전혀 없다	월 1회 미만	월 1회	주 1회	매일
⑥ 과음 다음 날 아침에 다시 술을 마신 적이 얼마나 자주 있었습니까?	전혀 없다	월 1회 미만	월 1회	주 1회	매일
⑦ 술을 마신 후 후회하거나 죄책감을 느낀 적이 얼마나 자주 있었습니까?	전혀 없다	월 1회 미만	월 1회	주 1회	매일
⑧ 전날 술을 마신 후에 일어난 일이 기억나지 않았던 적이 얼마나 자주 있었습니까?	전혀 없다	월 1회 미만	월 1회	주 1회	매일
⑨ 음주로 인해 자신이나 다른 사람이 다친 적이 있습니까?	없다	지난 1년간 없다(2점)	지난 1년 내 있다(4점)		
⑩ 가족, 친구, 의사 또는 주변 사람이 귀하의 음주에 대해 걱정하거나 술 끊기를 권유한 적이 있습니까?	없다	지난 1년간 없다(2점)	지난 1년 내 있다(4점)		

나의 음주 위험도는?

● 남자

● 여자

0~9점	1~5점	정상	비교적 건강하고 안전한 음주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10~19점	6~9점	위험	음주 문제 예방을 위해 조절이 필요합니다.
20점 이상	10점 이상	알코올 남용·의존	음주량과 횟수 조절이 어려운 상태로, 줄이는 단계가 아니라 끊어야 할 단계입니다.

Step 2

“건강 지켜!”
선 넘지 않는
음주생활을 위해
알아야 할 것들

제가 고위험 음주자라고요?

고위험 음주율은 한 번의 술자리에서 남성 7잔 이상, 여성 5잔 이상의 음주를 주 2회 이상 하는 비율을 말해요. 질병관리청은 전국 19세 이상 성인 약 23만 명을 대상으로 음주 습관을 조사, 『2025년 지역사회건강조사』를 발표했는데요. 이에 따르면 성인 10명 가운데 6명(57.1%)은 한 달에 한 번 이상, 3명(33.7%)은 월 1회 이상 폭음을 했다고 해요. 주 2회 이상 반복적으로 폭음하는 고위험 음주자는 12%로 집계됐어요.

흡연자의 고위험 음주 위험 2.6배

같은 자료가 발표한 통계 중 주목해야 할 내용이 또 있어요. 바로 음주와 생활습관이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는 건데요. 흡연자는 비흡연자보다 고위험 음주 가능성이 2.6배, 고혈압이나 당뇨병 진단을 받은 사람은 1.3배, 우울 증상이 있는 사람은 1.2배 높은 걸로 나타났어요. 지역별 통계도 관련성을 뒷받침해요. 고위험 음주율이 높은 지역은 낮은 지역보다 흡연율과 비만율이 높고, 걷기 실천율은 낮으며, 고혈압과 당뇨병 진단 경험도 많은 것으로 분석됐답니다.

여성에게 더 치명적인 폭음

다행히 지난 10년간 남성의 고위험 음주율은 모든 연령에서 감소했어요. 특히 20대 남성은 2016년보다 41.6%나 감소했고 30~40대에서도 큰 폭의 감소가 나타났어요. 반면 여성의 경우 20대만 소폭 감소했고 30대 이상에서는 모든 연령에서 큰 폭으로 증가했어요. 여성의 고위험 음주 기준은 남성에 비해 절반 수준으로 낮았는데요. 여성은 남성보다 체수분량이 적고 체지방 비율이 높아 같은 양을 마셔도 혈중알코올농도가 더 높게 오르고, 알코올 분해 효율도 떨어져 간 손상과 심뇌혈관 질환 위험에도 상대적으로 취약하다고 해요. 미국 국립암연구소(NCI)는 여성의 경우 하루 1잔의 음주만으로도 유방암 발생 위험이 높아진다고 경고하고 있어요.

월간 폭음률은 OECD 회원국 중 5위

“요즘엔 술 마시는 사람 별로 없지 않나?” 맞아요. 실제로 고위험 음주율뿐 아니라 월간 음주율을 비롯한 음주 횟수 관련 수치는 많이 낮아졌어요. 그럼에도 한국의 폭음 수준은 여전히 높은 편이에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한국의 월간 폭음률은 통계가 있는 27개 회원국 가운데 다섯 번째로 높아요. “예전에 비하면...” “이 정도면 양호하지!” 하고 생각해왔다면, 지금이라도 상황을 직시하고 음주 습관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마음나래의 문은 활짝 열려 있습니다

마음나래 프로그램은 교정공무원을 위한 전문상담 프로그램으로, 일상의 어려움을 돕고 행복한 삶을 지원합니다. 상담이 필요하거나 심리진단을 받아보고 싶은 분은 언제든 마음나래의 문을 두드려주세요. 상담 내용은 철저히 비밀 보장됩니다.



홈페이지 바로가기



카카오톡 채널 바로가기



교정본부 주요 소식

2026 09+10



2026. 09. 10.

“국민 안전과 국가 미래 위해 변화 필요” 법무 조직 개편 위한 정책 토론회 개최



법무부는 지난 9월 10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성호·강득구·채현일 국회의원과 함께 「정부조직법」 개정안 발의에 따른 법무 조직 개편 방향을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교정행정의 정책 환경과 업무 범위가 크게 변화한 상황에서, 교정청 신설 등 법무 조직의 발전 방향을 국회와 정부, 학계 전문가가 함께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교정행정은 만성적 과밀수용과 마약중독자·정신질환자 등 고위험군 수용자의 급격한 증가로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을 요구받고 있으며, 단순 수용 관리를 넘어 교정·교화와 치료·재활을 통한 사회 복귀 및 재범 방지로 그 역할이 확대되고 있다. 이에 토론회에서는 교정청 신설을 통해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임으로써, 고도화되는 교정 수요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재범 방지 역량을 강화할 방안이 논의됐다. 아울러 교정청 신설이 실질적인 정책 역량 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교정청의 기능과 권한, 조직과 인력 운영 체계 등 구체적인 조직 설계 방향도 함께 거론됐다.

법무부는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면밀히 검토해 교정청 신설 등 향후 법무 조직 발전 방안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2026. 08. 11.

교정본부-대한민국한자교육연구회-대한검정회 업무협약 체결

교정본부는 대한민국한자교육연구회·대한검정회와 '국가기록물 번역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6·25전쟁 당시 교정시설을 지키다 순직 하거나 국가 질서 유지를 위해 헌신하다 납북·행방불명된 교도관을 추가 발굴하고 관련 기록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위해서다. 이번 협약이 전쟁의 혼란으로 인해 역사에 묻혔던 순직 교도관들의 명예를 되찾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2026. 08. 22.

심리치료과 신설 10년, 미래를 위한 심포지엄 개최

법무부는 지난 8월 22일 코엑스마곡 컨벤션센터에서 「심리치료과 신설 10주년 기념 특별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재범 방지의 길, 심리학에서 찾다: 교정 심리치료 10년의 성과와 미래'를 주제로 진행됐으며, 교정공무원과 한국심리학회 회원 등이 참석해 지난 10년간 교정 심리치료의 주요 성과와 현장 적용 사례를 공유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2026. 08. 22. ~ 28.

「제61회 전국기능경기대회」에 수형자 22명 출전

지난 8월 22일부터 28일까지 인천광역시에서 열린 「제61회 전국기능경기대회」에 전국 수형자 22명이 참가해 목공, 타일 등 9개 직종에서 금상 4명, 은상 4명, 동상 2명, 우수상 3명, 장려상 5명을 비롯해 총 18명이 입상했다. 수형자들은 지난 4월 「지방기능경기대회」에서 입상해 참가 자격을 얻었으며, 무더위에도 구슬땀을 흘린 결과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 있었다.



2026. 08. 28.

「제1차 교정청 신설 관련 전국 교정공무원 토론회」 개최

지난 8월 28일 법무연수원에서 「제1차 교정청 신설 관련 전국 교정공무원 토론회」가 열렸다. 전국 각 기관을 대표해 참석한 교정공무원들은 교정청 신설을 위한 추진 방안을 함께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법무부 교정미래혁신단은 「정부조직법 일부 개정안」의 취지와 주요 내용을 설명했으며, 이후 현장에서 체감하는 교정청 신설 필요성과 발전 방향에 대해 자유토론이 진행됐다.



2026. 09. 03. ~ 04.

직영 작업 및 예산 담당자 워크숍, 현장 경험과 우수 사례 공유

교정본부는 9월 3일부터 4일까지 이틀 동안 전국 직영 작업 및 예산 담당 직원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는 2026년 교도 작업과 직업 훈련 운영 현황 등이 공유됐으며, 공공기관 수요 현황과 민간 판로 확대 방안에 대한 깊이 있는 토의가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현장 경험과 우수 사례를 공유하는 한편, 실무자 네트워크를 다지는 등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2026. 09. 10. ~ 11.

정신건강·심리상담 담당자 한자리에, 현장 중심 발전 방안 모색

지난 9월 10일부터 11일까지 전국 교정기관 정신건강·심리상담 담당자가 총괄 단양군에서 워크숍을 가졌다. 이날 워크숍은 최근 개편된 수용자 심리상담 가이드라인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더불어 직원들의 정신건강 증진 방안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는 시간이기도 했다. 실무자들의 생생한 경험담이 쏟아졌던 워크숍 과정은 향후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예정이다.



전국 교정기관 소식을 전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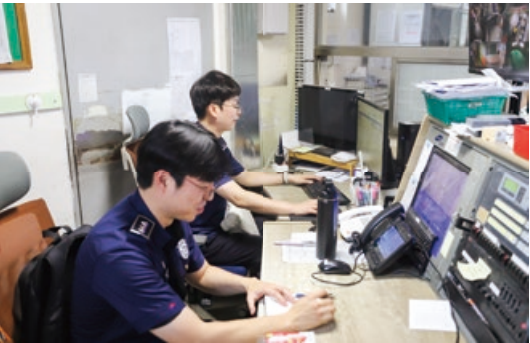
더 밝은 교정행정을 위한 우리들의 발걸음.

서울지방교정청

서울구치소

‘금융문맹’ 탈출! 금융 전문가 존 리 특별 강연

서울구치소는 지난 8월 26일 ‘존리의 부자학교’ 존 리 대표를 초청해 특별 강연을 열었다. 이번 강연은 직원들에게 최신 경제 흐름과 돈의 원리, 실생활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금융 지식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존 리 대표는 미국 라자드자산운용 매니징 디렉터, 메리츠자산운용 CEO를 지낸 바 있으며 『존리의 금융문맹 탈출』 등 베스트셀러 저자이다.



인천구치소

한국일보 72시간의 동행 취재, 교정공무원 노고 심층 보도

지난 7월 20일부터 3일간 한국일보 기자가 인천구치소를 방문해 교정 현장을 밀착 취재했다. 이번 취재는 교정행정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국민의 일상을 더 안전하게 지킬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진행됐으며, 인권 보호와 엄정한 법 집행 사이에서 고군분투하는 일선 교정공무원의 노고가 심층 보도됐다.



원주교도소

TV조선 기자 ‘1일 교도관’ 체험, 과밀수용과 격무 현장 집중 조명

지난 7월 10일 TV조선 ‘뉴스 9’ 팀이 원주교도소를 찾았다. 기자가 ‘1일 교도관’으로 나서 수용동 계호와 CRPT 출동을 직접 체험했으며, 현장 직원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통해 교정시설 과밀화 실태와 교정공무원의 열악한 근무 여건을 깊이 있게 다뤘다.



대구지방교정청

경북북부제2교도소

청송군과 함께 노인 수형자 치매 예방 프로그램 실시

경북북부제2교도소가 청송군 치매안심센터와 연계해 고령 수형자를 대상으로 「제1기 노인 수형자 치매 예방 프로그램(7월 22일~9월 27일)」을 진행했다. 이번 과정은 계산하기와 단어 찾기, 퍼즐 등 맞춤형 인지 강화 활동으로 구성됐으며, 수형자의 인지 건강 증진은 물론 수용 관리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천소년교도소

김천미술 박기욱 작가 초대전, 수채화로 온기 전했다

김천소년교도소는 지난 8월 3일부터 9월 30일까지 두 달간 관내 ‘담이음갤러리’에서 김천미술협회 박기욱 작가의 수채화 작품 15점을 선보였다. 이번 전시는 수용자의 정서 안정과 긍정적 내면 변화, 일선 직원들의 심리적 휴식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부산교도소

전주대사습청 초청 공연, 품격 있는 무대 선보여

부산교도소는 지난 8월 3일 전주대사습청 공연단 17명을 초청해 풍성한 우리 가락 한마당을 펼쳤다. 이날 공연은 부채춤과 가야금 병창 등 품격 높은 국악 무대로 꾸며져, 문화 사각지대에 놓인 수형자들의 정서를 달래고 삭막한 교정 현장에 밝고 건강한 활기를 전했다.



창원교도소

창원시마산가족센터와 ‘2026년 하반기 가족사랑 캠프’ 개최

창원교도소는 수용 생활로 인해 해체 및 훼손 위기에 처한 가족관계를 회복하고, 출소 후 안정적인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해 지난 8월 10일 「2026년 하반기 가족사랑 캠프」를 열었다. 이번 행사는 창원시마산가족센터와 연계해 진행됐으며, 수용자와 가족이 서로 마음을 열고 소통할 수 있도록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대전지방교정청

대전교도소

「제61회 전국기능경기대회」타일 직종 은·동메달 석권



대전교도소 수형자들이 「제61회 전국기능경기대회」에서 수준 높은 기술력을 입증했다. 지난 8월 22일부터 28일까지 인천에서 열린 이번 대회 타일 분야에 참가한 수형자 두 명이 각각 은메달과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 대전교도소는 출소 후 건전한 사회 정착과 재범 방지를 위해 맞춤형 직업 훈련과 지원을 이어갈 방침이다.



청주교도소

충북함께한걸음센터와 업무협약, 마약류 수용자 재활 협력 약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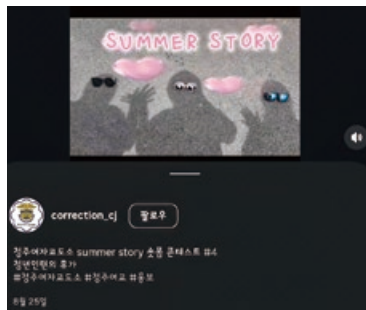
청주교도소는 8월 14일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충북함께한걸음센터와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마약류 수용자 재활 프로그램 운영에 힘을 모을 것을 약속했으며 향후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 출소 후 재활을 통한 재범 방지 활동 등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천안교도소

『코리아타임스』와 함께 외국인 수용 현장 전 세계에 알려

천안교도소가 지난 8월 6일 영문 일간지 『코리아타임스(The Korea Times)』와 함께 외국인 교도소 수용 현황 취재 및 직원·수용자 인터뷰를 진행했다. 이번 취재 내용은 아시아 뉴스 네트워크(ANN) 회원사를 통해 전 세계 18개국에 소개됐으며, 한국 교정행정의 우수성과 세심한 외국인 인권 처우 실태를 알리는 성과를 거뒀다.



청주여자교도소

여름휴가 일상 담은 숏폼 영상 콘테스트, 유연한 공직문화 선도



청주여자교도소는 지난 8월 3일부터 14일까지 전 직원이 참여하는 「서머 스토리(Summer Story) 숏폼 콘테스트」를 열었다. 직원들은 각자의 행복한 여름휴가 순간을 짧은 영상으로 나누며 일상의 심표를 찍었다. 아울러 모바일 영상을 매개로 격의 없는 소통을 나누며 활기찬 직장 분위기를 만드는 데 힘을 모았다.

광주지방교정청

전주교도소

혈액 수급 어려운 휴가철 맞아 헌혈 캠페인 나서

전주교도소 직원들이 지난 8월 6일 헌혈에 나섰다. 혈액 수급이 어려운 여름휴가 시즌에 안정적 혈액 공급을 돕기 위해 '생명 나눔 사랑의 헌혈 캠페인'을 벌인 것. 직원들은 오는 10월 28일 '교정의 날'에 2차 헌혈에 참여, 나눔과 이웃사랑을 실천할 계획이다.



장흥교도소

가석방 신청 수형자와 장흥종합사회복지관 나눔 봉사

장흥교도소는 9월 정기 가석방을 앞둔 수형자들과 함께 장흥종합사회복지관을 찾아 뜻깊은 나눔 활동을 펼쳤다. 이번 활동에는 장흥교도소 교정협의회 임원진도 동참해 일손을 보탰으며, 출소를 앞둔 수형자들이 이웃 사랑의 가치를 되새기고 안정적인 사회 복귀를 다짐하는 소중한 자리였다.



군산교도소

옥정골 보라미봉사단, 옥구초 학생들에게 장학금 전달



군산교도소 옥정골 보라미봉사단이 17년째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한 손길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7월 22일 군산 옥구초등학교에서 상반기 장학금 전달식을 가졌으며, 이 자리에서 학생 3명에게 총 30만 원의 장학금과 장학증서, 학용품을 전달했다.

정읍교도소

「제1회 가족사랑 캠프」 개최, 가족 만난 수용자들

지난 7월 24일 정읍교도소에서 「제1회 가족사랑 캠프」가 열렸다. 정읍교도소는 '회복과 동행'을 테마로 정하고 가족과의 대화, 함께 식물 심기 등 활동을 하며 안정과 치유의 시간을 가졌다. 「가족사랑 캠프」는 단절 위기에 놓인 수형자의 가족관계를 회복하고 안정적 사회 복귀를 위한 디딤돌 프로그램이다.



제81주년 교정의 날! 교정공무원들에게 응원을 보내주세요

2026년 10월 28일은 81번째 교정의 날입니다. 국민의 안전과 사회 정의를 지키기 위해 헌신하는 대한민국 교정공무원들에게 따뜻한 응원의 마음을 전해주세요.

#응원 댓글 이벤트



당신의 헌신을 기억합니다.



여러분의 있기에
국민의 안전은 오늘도 맑음입니다.



힘내라! K-히어로

SNS
EVENT



제81주년 교정의 날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참여 기간 2026년 10월 6일 ~ 28일

참여 방법 교정본부 인스타그램 이벤트 게시물에
응원 댓글을 남겨주세요.

이벤트 경품 추첨을 통해 커피쿠폰을 드립니다.

효과없는 키워드 광고에 위약금 폭탄까지?

이런 광고대행업체는 신고하세요!

온라인광고대행 불법행위 신고센터 운영 개시

※ 신고대상 : 온라인광고 대행 계약 이행 및 해지 관련 불공정행위

